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겸 주간 이장희
편집장 강인숙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578호 1992년 4월 14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공통분모의 토대 위에 독자적 발전 모색

용인캠퍼스가 대학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차적으로 '동맹휴업' 조처를 철회함에 따라 이번 주 등록금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3·11면)

이번 용인캠퍼스 학생회와 대학당국간의 합의사항은 크게 10개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초 제기되었던 '재단전입금' 부분은 서울캠퍼스와의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아 일단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산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합의된 이번 용인캠퍼스 학생요구안은 크게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육여건, 취업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부문을 보면 합의사항은 총 7개 사항으로 3월초 등록금 협상의 시작과 함께 용인캠퍼스가 가장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던 부문이다.

△교육과정 개선 부분은 처음 협상 당시에는 '교육내용'으로 논의돼 왔으나 10일(금) 총장과의 상충협상에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이의 내용 중 제외된 부분은 '전임교수제'의 도입으로 독자적인 캠퍼스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수진의 일악성으로 인하여 이번 합의문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진다.

△단과대학의 합의에서는 특히 동구이대의 단대분리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관련 학과의 과장과 학생대표가 협의를 하게 됨에 따라 '단대 협의기구'의 구성을 이룰 수 있는 문구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학교, 학생은 국가로부터 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이후 국고보조금 확충을 촉구하는데 있어 대학당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전입금의 확충 및 등록금 의존율을 인하하기 위해서 총학생회는 이번 문구를 전년도 학원민주화 합의사항 중 '학교의 예결산자문위원회는 학생측 예결소위와 논의하여 이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8항)는 문구를 빌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학당국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사항 중 가장 쟁점사안이 된 것은 '왕산발전위원회' 관련 부문으로 용인캠퍼스 학생회측에서는 학생의 학사 행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밝힌 바 있다.

'왕산발전위원회'는 크게 교수위원회와 학생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이루어지며, 양자는 그 산하에 교육재정·과정·여건, 취업에 대한 각각의 소기구를 편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총학생회측에서는 이번 심의, 의결기구의 건설에 따라 민주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상강화를 통한 학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용인캠퍼스의 전격적인 대학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서울캠퍼스도 이후 입장을 정리하고 이전의 투쟁목표에 대한 수정안을 내오고 있다.

12일(일) 열린 서울캠퍼스 비상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위한 방안모색 △현시기에 있어서의 투쟁 목표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재단전입금 확충은 그동안 등록금 협상의 과정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안으로 다뤄왔으나 이는 '외대 장기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핵심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외대발전이라는 과제를 두고 실천방향을 모색했을 경우 선차적으로 캠퍼스의 발전을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점과 이의 고려가 없는 무조건적인 재단전입금의 확보는 당면한 현실속에서 더 이상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의식의 바탕 위에서 △현시기의 투쟁목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캠퍼스의 이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더이상의 발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서울캠퍼스가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여진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전국 사립대학이 양적, 질적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단과대학의 확충은 물론 기존의 시설을 확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으로 학생측은 서울캠퍼스의 이전을 통해 서울·용인캠퍼스가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재단측이 96년 내지 98년도에 용인캠퍼스로의 양캠퍼스 통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자칫 재단과의 정면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요사안으로 보여진다.

재단측은 현재 용인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이에 대한 부지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은 이미 용인캠퍼스 설립당시의 장기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등록금에서 산출하여 갚아 나아가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88년 부터 세곡동·자곡동 토지를 매각하여 학생등록금으로 갚은 부분을 이후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표명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후 투쟁방향으로 서울캠퍼스는 '캠퍼스 이전'을 중심으로 오는 16일(목) 이의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 학생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이 서울·용인캠퍼스는 등록금 협상의 수위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공통점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재단의 전입금은 확충되어야 하며, 재단이 이에 대한 부지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

'왕산발전위원회'의 설치가 학생의 학사행정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꾀한다면 '외대발전 2천년 위원회' 또한 이러한 부분을 내포하는 조직체 이다.

따라서 양자는 공통분모에 대해서 더욱 많은 논의를 거쳐 각 캠퍼스의 독자적 발전을 통한 발전적인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재단전입금을 강제해 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고 근본적인 학내소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다.

〈이영환 기자〉

서울 캠퍼스는 오는 16일(목) '캠퍼스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측 요구사안의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 왕산발전 위한 합의사항 도출·전입금 부분만 유보

서울, 장기적 발전 위한 캠퍼스 이전이 현단계 투쟁목표

빈의자

깨진 권력과 금력의 화음(?)

▲누군가가 '권력'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주 추악한 것'이라고 말하겠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손에 쥔 자 치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자 치고 추악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와 불법이라는 눈살 찌푸려지는 행위들이 언제나 권력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국민들의 뒤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설사 국민이 다 아는 대낮의 천인공노할 도둑질도 권력이란 놈만 있으면 오리발이 가능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와 공생공존할 때는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한번 뒤틀리게 되면 그 값을 톡톡히 치뤄야 한다는 권력의 논리 또한 이 사회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젠 그 권력의 추악함이 극에 달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재벌당 국민당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즐기차게 쏟아 놓았다. 총선에서 상상외로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엔 국민당 대표이자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씨가 '경제대통령'이라는 공약 아닌 공약을 내세우며 대권에 도전하겠노라 선언하고 나섰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이 재벌당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현대그룹이 자행한 온갖 비리가 연일 신문지상을 수놓으며 폭로되고 있다.

▲참으로 오랫만에 폭로되는 비리이다. 하지만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제재가 아닌가. 재벌기업의 은행대출 유용이나 탈세, 환경훼손이 어디 이제오늘의 일이었는가? 이제까지 입 꾹 다물고 '오냐오냐' 덮어두고 숨겨주던 것을 지금에 와서 부각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 뒤에서 정치자금이나 퍼싸 대주면서 밀어주면야 몇백·몇천억의 비리도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내 권력을 빼앗기는 건 싫다' '네가 가진 금력과 내가 가진 권력이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우리들 세상'이 될텐데 무슨 대통령 출마니 어쩌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느냐'하는 추궁쯤으로 해석된다.

▲그런다고 두 눈 비켜이 뜨고있는 국민들이 그 정치적 술수에 속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젠 권력을 탐하는 추악한 다툼이 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권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지나온 역사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교훈이다.

진정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먼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진정 국민들의 바탱에 귀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만이 추악한 권력이 아닌, 국민이 부여하는 아름다운 민중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황효순〉

지 면 안 내

3면:용인캠퍼스 13일 동맹휴업 철회
6면:92년 입후전망
8면:외대인이 바라는 올바른 언론
9면:전대협 총노선 분석

알 림

지난 577호 4월7일자 기사 중 '학교예산의 80%를 재단이 부담한다'를 '재단수익의 80% 이상을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로 바로잡습니다.

얼음밑을 조용히 흐르던 속삭임이
얼음을 깨는 외침이 되어 일어서고 있습니다

'중흥외대'
결코 잡을 수 없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작업 속에서
우리는 외대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만3천 외대인이 하나되어
실천으로 이끌어 갑시다

〈이문·왕산 총학생회〉

사설

다시금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외대인이라면 누구나 등록금 투쟁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 등록금 투쟁이 이제 막바지 고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애국외대의 이름 아래 단결만이 살길이라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하나로 뭉쳐진 서울, 용인 학생들의 외침이 조금씩 성과물을 낳고 있지만 아직도 1만 3천 학우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은 멀기만 하기에 다시한번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대학당국은 해심사안인 재단전입금 확충에 있어서는 한마디의 성실한 답변도 없이, 당연히 책임지고 수행했어야 할 학생복지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 수용을 미끼로 등록금문제의 본질을 숨긴채 이번 투쟁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용인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복지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용인 학생희측과는 일정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학교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라기 보다는 서울, 용인 학생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의도를 숨긴 대응방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인학생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결코 서울, 용인의 분열도 아니고 등록금 투쟁의 끝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의 힘있는 단결체 투쟁의 성과물일 뿐이다.

기간에 물밑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던 전외대인의 외대발전이라는 염원이 이번 등무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강압적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외대의 역사이다.

그런데도 '재단의 자산과 수익이 엄마이기에 재단전입금 확충이 불가한지, 왜 등록금을 18.18%나 인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매년 막없이 뛰는 등록금이 다 어디로 쓰이기에 교육환경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해 외대인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이렇게 힘에 의한 강압으로 정리하려 드는 대학당국의 대응은 결코 진리, 평화, 창조라는 본교의 교훈에 걸맞는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 수업마저 거부하면서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는, 학원의 일주체로서 진정한 외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저 패륜아들의 못된 행위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이상 '외대발전'이라는 전외대인의 요구를 힘으로 눌러 가라앉히려 할 것이 아니라 학교당국과 재단은 지금이라도 가장 성의있고 솔직한 모습으로 학원의 주체들과 함께 외대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외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4,5월 대중투쟁에 총력을

총선이후 현 정권의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에 대한 탄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선을 전후한 잇따른 조직사건의 출현과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종대(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씨의 연행, 노동자들의 입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강경대응 발언등 또다시 공안탄압의 한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탄압사례들은 일상적으로 전행되고 있는 민민운 탄압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난 91년 하반기부터 전행되어온 현 정권의 민민운에 대한 탄압전술의 변화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본교 6·3투쟁이나 유서대필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전까지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간접탄압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입무나 파업투쟁역시 직접적 개입보다는 경제위기를 앞세운 노동자 책임론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의 입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지배방식의 새련화'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배방식의 변화가 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권력재편을 앞둔 지배세력의 역공습'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민운 진영의 이에대한 대응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4~5월이 노동자들의 입무를 시작으로 대중투쟁이 폭발적으로 전출하는 시기라는 것과 최근의 부정선거 규탄투쟁 강경대열사 1주기 추모제 및 5·18로 이어지는 급박한 정세들을 감안했을때는 또다시 4~5월의 거리가 뜨거워 질 것 같다.

이제는 단순히 작년 5월 가두에서 부르짖었던 '공안내각 사퇴'가 아니라 독재의 연장이냐 민주정부 수립이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때문에 우리는 최근의 민민운 탄압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4~5월 대중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국민들을 의식화·조직화 해내어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전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제는 탄압에 움츠러들 시기가 아니다. 학원자주화 투쟁의 소중한 성과와 총선결과에 반영된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안고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4~5월 대중투쟁에 총 집중하자.

흡산의 소리

취업정보망 필요성과 상반기 채용 경향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학졸업자의 취업현실속에서 수년간 실시해오던 취업알선체제로는 급변하는 사회발전과 구조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구인정보에 응할 수 없음을 새삼 말건함과 동시에 자성적 판단을 해본다. 차제에 외대도 이제는 구인정보의 수요에따른 구직정보의 소프트웨어 개발및 취업업무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과 함께 목전에 와 있는 상반기 채용에 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한다.

1. 취업정보망 구성및 전반적인 취업업무 체질 개선의 필요성

현재까지의 취업업무절차및 형태는 서류, 전화, 팩시밀리(FAX)등에 의한 추천의뢰가 학생처에 접수되어 각 교학과, 학과를 통해 전달, 게시하여 홍보하면 학생들은 각 학과 나름대로 만든 추천서열에 의해 —이렇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에 의하여—추천업무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추천의뢰처에 맞는 적격학생을 선발시 성적이외는 특별히 적용시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는 곧 중간매개 역할이 아직도 원초적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서는 홍수같이 쏟아지는 외부정보와 전산화를 통한 객관적, 과학적 방법을 요구하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공급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정보전산망의 신설과 업무체계 자체도 시대적 부응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2. 상반기 채용 경향

지난 2주동안 정보매체와 대기업 10개그룹을 방문한 결과 '92년도의 상반기 채용은 상당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산업사회의 순기능적 반응으로 이공계출신의 상승과 인문사회계열의 감소추세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여성고용시장은 더욱 좁혀지는 현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외대를 재조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채용관련사항을 정리하면 상반기는 서류전형, 면접중심으로 서류전형 중에서도 자기소개서작성시 성의있는 작성여부가 합격의 관건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었다. 면접시험은 성실한 태도와 예의, 자세등 인간됨됨이로 회사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상반기 채용모집을 4월중에 실시한다는 사실을 8월졸업예정자나 기 졸업자는 명심하여야 하겠다. 특히 여성인력의 취업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수에 너무 집착하지말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는 마다하지 않는 정신자세와 주장하는 만큼 일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이 절대 필요하겠다.

끝으로 구인정보망 구성과 소프트웨어 개발및 입무개선에 학교당국은 물론 전 구성원 모두가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며, 차제에 대내외적으로 외대가 처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직시하여 숭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중지를 모아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강영은 취업보도주임〉

진정 외대의 중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외대학보 사설을 읽으며

지난 6일(월)과 7일(화), 양일간 있었던 등맹휴업 찬반 투표에 재적원원중 66.2%가 참가하고 그중 65%가 찬성하여 우리의 등무는 승리로 가는 또 한발의 발걸음을 딛었다. 이번 등무는 1만3천 외대인의 요구를 모아 63개 항생요구안을 만들어내어 학교, 재단에 제시함으로써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든 외대인의 참여로 이루어 지고 있다.

등무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등맹휴업 찬반투표 들쐐냄, 어김없이 왕산 전역에 배포된 외대학보를 읽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측 요구안 분석, 타학교 상황, 협상과정등을 비롯해 거의 모든 면이 등무를 다루고 있는데 유독 사설은 그 모든 면과 너무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교수가 쓴 것으로 보이는 4월 7일자 '비상을 기다리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란 사설은 현재의 상황을 '외대사태'로 표현하며 '외대의 중흥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진보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으려는 요구가 과연 외대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요구인가?

'커져버린 우리 몸에 맞지않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던 왕산캠퍼스는 기숙사나 자취방이 턱없이 모자라고 통학을 하려해도 4~5시간이 걸려 교통문제의 해결은 왕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 비상총회마다 천오백이 넘는 학우가 참가하고 등맹휴업 찬반투표에는 66%가 참가하였다. 이렇게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설 쓴이의 마음은 '우울하기 그지없다'란 말인가? 사설에서 계속 강조된 '진통'과 '중흥'은 무엇인지, 교직원과 동문의 모금활동이 진정한 중흥의 길인지 의심스럽다.

지난학기 외대학보의 기자들이 그렇게 소리높혀 외쳤던 것은 사설권, 편집권 사수와 광고집서회복이었다. 이는 1만3천 외대학우에 의해 만들어지고 1만3천 외대인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우리학보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근거한다. 또한 이문, 왕산 전역을 누비며 외대인의 눈과 귀가 되어 학보를 만들어내는 학생기자들이 다른 지면과 논조가 같은 '온전한' 학보를 내기위해 사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학보사 기자들이 사설권, 편집권투쟁을 할 때 외대학우들이 좀더 힘을 모으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사설은 곧 신문의 전지면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어느 개인 필자의 의견피력이 아닌 외대인의 논조를 대변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당위를 지켜낼 자신이 없다면 교수들 스스로 사설권을 기자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교수 학생이 번갈아 쓰게 된 사설을 다시 이제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인지 모르나, 학보는 외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 하며 무한히 변화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설권을 학생기자가 가지고 질풍발이 신문이 아닌 완전한 우리의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보를 읽으면서 학생요구안 63개항중 41, 45, 46번항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개악된 학칙개선, 언론 사전검열 폐지, 기자 성적제한 규정 철회, 학보사 광고 합의사항 시행은, 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요구안 중에서도 외대학보가 발전하는 절실한 요구사항이라 생각된다. 등무승리와 함께 외대학보의 승리 또한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소영 서학·이태리어3〉

문·열·어·주·세·요

학교 후문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 나 외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후문 근처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후문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잠겨있다. 매번 일요일만 되면 정문으로 멀리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고, 마치 군대 유격장을 연상케하는 담 타넘기또 이젠 지쳐버린 상태이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후문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지적과 불편사항에 대한 호소는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가 이렇게 절실한데도 계속 후문을 닫아놓은 이유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학교 후문은 너무 불품없고 허술하다. 후문쪽 하교담 옆에는 항시 쓰레기차가 짙게 주차해 있고, 문도 많이 녹슬어 있다. 적어도 대학의 문 이라는 것이—비록 후문이긴해도—가정집 대문만도 못하다. 새로 하나 지어볼직도 한데 …

애국외대의 후문. 도대체 그게 뭡니까!

〈전황표 동양·베트남어3〉

짧은 대학 경험, 진보로 나아가는 토대로

—92학번 동기들에게

외대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정문에서부터 '새내기'란 단어를 끝도 없이 접하던 몇주일 전만해도 왠지 외대가 어색하기만 하고 남의 집에 온 것 같았는데 이젠 하루라도 안 오면 궁금해지는 우리 집으로 어겨진다. 처음 대학에 발을 들여놓고 어리둥절 두 눈만 깜빡깜빡하는 우리 신입생들을 귀엽게 여겨주신 선배님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징그럽게 보이는지 사랑이 식은 듯하다. 이 점에서 선배님들께 매우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92학번이 고등학생의 티를 벗고 진정한 대학인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니 흐뭇하기도 하다. 스스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자주적인 외대인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도 같고.

어하튼 한달이란 짧은 기간에 참으로 제미있고 보람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예비학교를 비롯해 신입생 수련회, 전체 모꼬지, 학회 활동, 선배님께 취중에 실수한 일, 동기와 다툰일, 그리고 짝사랑 하다가 결국 마음 잠은 일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이런 경험들이 모두 '추억'이란 두 단어 아래에 한묶음이 되어 있다.

누가 들으면 풋내기가 참 거창하게 말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한달이란 기간은 짧은 것이다. 그러나 비록 한달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보람과 후회를 느끼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외대에서 이미 생활해 온 시간보다 앞으로 생활할 시간은 참으로 길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대학생활은 재미 있고도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대를 빛내는, 외대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하고 항상 반성하며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밑거름삼아 후회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배님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후배들이 우러 보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자랑스런 외대를 가꾸어온 지금의 선배님들처럼 말이다. 그와 동시에 진보를 목표로 삼는 외대인이 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외대를 더욱더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모두 진보를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자!

〈김경철 동양·이란어1〉

독 자 만 화

〈용인캠퍼스 그림사랑〉

진리·평화·창조

한국외국어대학교『外國學綜合硏究센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동의 산실

세계를 호흡하는 지성과
미래지향적 국제인을 양성하는
외대는 21세기를 대비한
학문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대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인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해
외대 발전후원회는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날로 성장하는 외대인은
2000년대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發展後援會

용인, 13일 동맹휴업 철회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합의 후 결정

학교측 캠퍼스 이전안…양캠 발전 고려 부족

서울·용인캠퍼스 학생들은 9일 '공동결의 대회'를 갖고 재단사무실 집기를 들어내는 등 강경함의 시위를 벌였다

4월 들어서도 등록금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의 조기타결을 위해 지난 8일(수) 단행됐던 용인캠퍼스 '동맹휴업'조치가 10·11일 이강혁 총장과 총학생회장 신건수(서학·체코어4)군과의 상충협상과정에서 그동안 학생측이 제기해 왔던 '학생의 학사행정참여'와 '학산 발전위원회'설치에 대해 대학당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어제(13일) 동맹휴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8차례의 '등록금 대책회의'와 3차례의 상충협상이 모두 결렬됨에 따라 단행됐던 이번 용인캠퍼스 단체행동은 지난 6·7일 각 학과별로 실시된 동맹휴업 찬·반 투표에서 총 5천2백86명(3월 집계 현재) 중 3천4백99명(65%)이 투표, 2천2백74명(66%)이 찬성함에 따라 8일 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정·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간부 2명, 일반학생 2명이 참가하는 '파업지도부'를 결성하고 동맹휴업 기간 동안의 행동지침 및 이후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용인캠퍼스는 당일 '등록금무쟁 완전승리를 위한 동맹휴업 결의대회'를 통해 이 기간동안 각 학과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교생이 평상시와 같이 등교할 것을 결의하였다.

9일(목)에는 용인캠퍼스 학생 3백여명이 상경, 서울캠퍼스에서 '양캠퍼스 공동결의대회'를 갖고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본관 2층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 집기를 들어내는 등안 본관 앞에서 공동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기 운반 도중 일부 보직 교수와 학생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주동학생에 대한 학칙적용 부분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금)에도 용인캠퍼스 동맹휴업이 계속됨에 따라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서울캠퍼스로 등교하여 대학원 강당에서 집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비상확대운영회의를 통해 각 학과 학생회장들은 63개항의 학생요구안에 대해 대학당국이 이를 수용하고 학사행정참여를 보장한다면 동맹휴업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총장과의 상충협상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진행된 11일(토) 새벽까지의 총장·총학생회장간의 협상에서는 대학당국이 '학산발전위원회'라는

기구의 건설에 합의하여 학생측은 이번 동맹휴업 조치를 일차적으로 철회하기로 하고 이후 재단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서울캠퍼스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용인캠퍼스는 '학사행정참여'라는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올해 등록금 협상을 통해 학내 학원자주화 조직을 건설하게 됐다. 따라서 학생측은 앞으로 있을 대학당국과의 재단전입금 확충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학당국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위상을 가진 협의체가 없음으로 해서 대학당국과의 논의진전이 부진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일정 정도 대학당국을 강제해낼 수 있는 학생측 조직체가 건설됐음은 학원자주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용인캠퍼스의 학원자주화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재단전입금의 확충방안과 학교발전 장·단기 계획에 있어서의 서울캠퍼스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 이후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번 용인캠퍼스 상충협상 중 재단전입금 부문에 있어서 대학당국은 2억원을 확충하여 학내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학생측에서는 이미 이러한 대학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재단전입금의 경우 더 이상 확충할 수 없음을 주장해 오던 대학당국이 이번과 같이 학생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양캠퍼스 복지시설 확충자금으로 2억원을 제시한다는 것이 '학생반발 무마용'이 아니냐는 학생회측 주장이다. 또한 2억원의 경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오히려 학생측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재단수익사업의 공개'여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장·단기 학교발전 계획안에 대해서 대학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용인캠퍼스로의 이전만을 구상하여 현실적인 학교발전에 대해서는 용인캠퍼스 우선 부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캠퍼스 학생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음직임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부〉

본교 조교 처우 개선 문제

연급여, 전국대학 평균미달

'조교협의회' 협의체 구성 필요

본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교제도'가 조교들에 대한 처우가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대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교들이 전체모임을 통해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조교처우실태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에 문의하여 자체조사해 본 결과, 본교 조교들에 대한 처우가 타대학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에서 나타났다.

이번 서울지역 '조교처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동국대·숙명여대·고려대의 경우 등록금 전액면제혜택은 물론, 조교급여는 5만원에서 5만5천원까지 장학금이 별도지급되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등록금 반액면제혜택과 월31만원의 장학금 지급, 상여금 4백%를 지급하는등 전국대학 일년 평균조교급여 수준이 3백3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교 조교급여의 경우 장학금으로 월18만5천원(연 급여 2백25만원)정도가 지급될 뿐이고 등록금 면제 혜택이나 상여금지급, 의료보험 혜택등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조교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용인캠퍼스 조교들의 경우 학교 교직원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왔으나, 대학당국이 3월초 부터 조교들에 대해 학교차량 탑승을 금지 하는 등 이미 제도화된 권리마저 폐지함에 따라 더욱 표면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9일(목)총무처장, 10일(금) 교무처장과의 면담을 갖고 대학당국에 △전국대학 평균 조교급여 수준인 연 3백30만원으로 처우를 개선할 것 △용인캠퍼스 조교의 경우에는 학교차량 탑승은 물론 별도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것 △사무실 운영비를 월5만원씩 지급할 것 △연구소 근무 조교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 할 것 등의 4개항에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계속해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면 고려해 보겠다"는 미온적 반응만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조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움직임은 조교의 위상이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과 열악한 연구 및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왔다는 일반적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단순히 조교들의 편의를 위한 집단적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조교들에 대해 대학당국이 자신의 피고용인쯤으로 여기는 권위주의적 학사행정을 시정하고 조교들의 지위에 맞는 연구 및 근무환경을 제공하는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다른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교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본교에도 설치하여 조교들이 대학당국에 대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노재봉 기자〉

노조, '단협'관련 쟁의 가결

협상, 상급 단체·인사제도 등 계속 난항

'92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대학당국과 직원노조 사이의 단체교섭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대립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의 파행적인 교섭과정을 통해 상호 이견만을 확인한 채 다시 재개된 지난 7일(화) '제6차 단체교섭'에서 대학당국과 직원노조측은 전문에서부터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제6차 단체교섭에서는 노조측 단체협약안 중에서 전문과 제1장 1조까지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문에 언급되는 상급단체 규정문제에 대해 대학당국은 "노동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비합법적 단체인 대학노동조합연합(이하 대학노련)을 직원노조의 상부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대학노련은 합법적으로 결성돼 있는 각 대학노조가 모여 결성된 정당한 단체"라며 "노조의 상부단체에 대한 결정은 노조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달린 것이지 사용자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이번 노조측의 단체협약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학당국은 노조가 92년 단체협약안 제1장 1조에 대학당국과 노동조합의 교섭내용에 인사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사에 관한 내용은 직원이 관여할 부문이 아니다"라며 협약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인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직원의 인사참여는 당연한 것"이라며 "작년 단체협약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대학당국의 태도는 단체협약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작년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부문은 제1장 총칙 제1조 조합의 교섭내용중 '인사제도' 부분과 제14장 보직 제3조 3항에 있는 "협약을 갱신체결할 때는 기존협약의 기준보다 저하시킬 수 없으며…"라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한편 6차 단체교섭에서도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대학당국의 입장이 전년도 단체협약 내용까지 무시하는 상태에 이르자 노조측은 지난 10일(금) '쟁의발생 심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용인캠퍼스 전체 대의원 25명중 15명이 참석, 찬성 12표, 기권3표로 쟁의발생을 가결시켰다.

또한 노조측은 오늘(14일) 오후에 쟁의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열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대학당국의 입장변화 여부가 이후 단체교섭의 행보에 중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알림〉

본보는 중간고사 관계로 이번 578호 발간 후 2주간 휴간하고 579호는 5월5일자로 발행됩니다.

한편 이번호 '외통수'는 화자의 개인사정으로 게재되지 않습니다.

6기 전대협의장에 태재준군 인준

'전대협 총회', 92년 사업·투쟁노선 결정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대협)는 지난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인하대에서 '제6기 전대협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하고, 92년도 사업방향 및 제6기 전대협 의장단 인준과 의장선출을 가졌다.

첫째날인 8일에는 문화행사와 함께 총회를 사수하기 위해 참석한 사수대의 결의대회가 간단하게 진행됐으며, 둘째날인 9일에는 총회 본행사로써 총노선에 대한 토론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 및 거리문화제 등이 열렸다.

정성준(인천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군의 전대협 강령과 규약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대학 총학생회장의 독단에 의한 전대협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학내 최고의 결기구를 '중앙위원회'로 바꿀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투쟁노선에 대한 심야토론에서 허 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 19명의 대의원들은 "이제까지의 통일투쟁을 봤을 때 전대협만의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라며 "정권과 보수야당이 공조체제를 이루는 현시기에 있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92년 대선에서 민중의 목소리로 정권의 본질을 폭로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술이며 이를 통해 민중적인 통일투쟁을 벌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의후 진행된 투쟁노선에 대한 투표에서는 1백13명의 대의원중 89명의 찬성으로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민중중심의 민주대연합을 건설하여 '민주연합권력'을 창출할 것등을 총노선과 투쟁노선으로 채택했다.

전대협 총회 앞두고 7일(화) '동충련 진군식'이 열렸다.

이와함께 10일에 있은 의장단 선출에서는 전대협 대변인으로 김정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인준됐으며, 조국통일 추진위원장에는 김영하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총회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전대협의장 선출및 옹립순서에서는 대의원 총1백84명중 1백8명이 투표하여 찬성96표 반대12표로 태재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국제경제학·4)이 전대협의장으로 당선됐으며, 인사말을 통해 태재준군은 "올해는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대협을 전총련으로 강화하여 백만학도의 중심조직으로 세우자"고 전대협 의장으로서의 첫포부를 밝혔다.

제47기 수습기자 추가 지원자 모집

민족자주 언론의 길을 이끌어 나아갈 외대학보의 새로운 일꾼들을 전형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일시 : 오늘(14일)서울캠퍼스 오후5시
  용인캠퍼스 오후 5시30분
- ●장소 : 서울－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용인－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 ●전형방법 : 14일－자기소개서 쓰기 및 토론회
  15일－면접

※원서 마감은 14일 당일까지 이며, 접수장소는 서울·용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입니다.

외 대 학 보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호선 전철, 그 짬통안에서도 선체로 책을 읽던 흡산의 정열이 오늘의 외대를 만들었지"

외대는 크고도 넓다.
서울캠퍼스만 생각한다면 조금은 작은듯한 학교—
그러나 모든 흡산이 지닌 자유인의 기질과
국제인의 심성을 이해한다면 외대는 진실로 큰
학교이다. 이런 국제인의 자질을 심분 살리듯
오대양 육대주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석탄에너지를
개발해내는 한인호 동문, 그리고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남미각국에서 나이지리아까지를
여행해본 경험이 있는 정유석 후배,
그들은 세계를 넘나들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첫 출장때였지, 출장중에 홍콩을 들르게 되었어,
그런데 그곳 지사장님이 '언제 홍콩이 반환되는지
아느냐' 하고 물으시더군.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 얼마나 혼이 났던지…어떤 나라로
가기전엔 그나라의 정치, 경제는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셨던가? 혼이 나면서도 '아,/ 이게 바로
국제인이라는 것이구나' 하는게 느껴지더군."
"선배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는 남미를
여행하며 숫적으론 중국인이, 경제적으론 일본인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속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국제인의 자질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두사람의 대화는 어느덧 미래르바동산으로
옮겨진다.
"빗꽃이 눈처럼 흩날릴 때면 우리는 모두
이 동산에 올라 젊음과 이상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합니다.
우리 외대인이 하나로 남을수 있는 것은
이 동산에서 '지혜의 여신'이 주는 세례를
다함께 받았기 때문이겠죠."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여신은 이 죽림굴방에도
있었다는 한동문—"지금도 생각나는군, 이
죽림굴방에 들러 잠깐 책을 보려다 나도 모르게
심취해서 약속시간을 넘겨버리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빽빽히 꽂혀있던 책들은 한없이
많기만 했던 내 젊음의 꿈들이었던것 같아.
지하철 1호선 그 짬통안에서도 선체로 지혜의
여신과 데이트를 하곤 했으니…"
흡산을 국제인으로 만든것은 역시 여담만이 아닌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나보다.
"선배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즉석도, 맞지
않는 오지에서 삼성인들이 그렇게 버텨주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글쎄, 뭐라할까…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마지막으로 교문을 나서며 멀어 온 충충한
밤하늘을 바라볼때의 뿌듯한 감정, 뭐…[illegible]의
비슷하다고나 할까, 하하하"
다정히 어깨를 맞대며 교문을 나서는 [illegible] 흡산이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만 보인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역사의 진통겪는 독립국가연합

이 수 진
〈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석사과정 마침〉

독립국가 연합은 기존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체질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CIS,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등 자본주의 경제개혁 추진

독점생산자와 특권적 중개인에 의해 가격형성, 생산성은 증가안됨

Ⅰ. 경제체제의 전환

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국가연합은 체질개선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은 올해 1월초에 가격및 임금 자유화조치를 취해 엄청난 물가폭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3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루블화가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이다. 현재 독립국가연합은 이미 빌어진 급진 경제 개혁을 되돌이킬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여 있다.

독립국가 연합이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핵시설' '정치적 안정' '경제적 전환'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 놓여있다.

독립국가연합은 기존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요소의 도입단계인 '체질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구소련 경제가 안겨준 경제적 피폐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를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국 독립국가연합이 지향하는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이며 현재 독립국가연합은 초보적인 시장경제의 실험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로는 자본주의 이념의 두가지 요소인 시장경제 원칙과 사유재산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근간을 이루기위한 그 단계적인 조치로서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모든 상업활동의 자유화 △토지사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대비무역의 자유화(루블의 태환화) 등을 들수 있다.

가격자유화

러시아공화국은 지난 1월초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조치를 취했으나, 물자부족난, 가격불균형, 특권층의 매점매석, 물가폭등등의 부작용을 보였다.

옐친의 구상에 의하면 가격통제의 해제는 물가를 최고 4배50%까지 인상시키지만, 그 대신 물자의 공급이 증대하여 만성적인 물자부족난이 해소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의한 가격 보조를 대폭 삭감하고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적 자폭을 줄인다. 루블화의 가치도 차츰 회복되어 루블은 국제적인 태환성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물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 자유화 조치는 오히려 국영상점과 자유시장의 이원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말았다. 이는 가격자유화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선진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므로써 국가재정과 유통구조를 제도적으로 갖춰나가, 물가폭등에 따른 생산구조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사유화 정책의 병행이나 독점적 생산자에 대한 제제조치없이 가격통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독점적 생산자와 특권적 중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반면 생산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등 9개국 대통령들은 1월중순경 정상회담에서 독점기업이 생산품가격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이윤을 50% 이상 붙이지 못하고, 각 나라 사이의 물자의 자유운송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느 나라 정부도 이 약속들을 실천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토지 사유화

옐친 대통령은 지난해말인 12월 28일 국영집단 농장을 폐지하고 농토를 사유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토지개혁 시행을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조치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집단농장의 개편을 완료하고 농토를 집단농장 소속 농민들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농지소유자는 농토를 판매하거나 은행대출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유산으로 상속도 할 수있다. 그리므로 집단농장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자영농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1월초부터 거주히가중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앞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의욕 고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토지사유화 문제는 보수파와 개혁파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점을 보이는 문제로서, 고르바쵸프 재임 기간중, 계속 유보되어온 문제였다. 지난 12월 개혁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은 독자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최초로 토지사유화를 입법화했으나 역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토지 매매는 10년간 금지하고 그 구체적 소유 형태는 인민대의원 대회나 국민투표로 결정짓도록 절충한바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모스크바 시당국은 지난해 11월 본격적 가격자유화 시행에 앞서 4천5백여개의 국영상점을 민영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영상점체도와 가격자유화가 경제이론상 양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조치는 최고의 난제이면서 경제개혁의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이행할 때 예외없이 나타나는 물가폭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품생산을 증대시키고 질을 개선해야만 하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관한 문제도 그 방법과 이에 따른 조세제도의 마련 과정에서 보수파와 개혁파간에 대립이 격화되어 왔었다.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령에 따르면 대규모 국영공장은 민영화하고 상점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 공화국은 국영기업에 지급해오던 보조금제도를 철폐하기로 통보해 조만간 대규모 민영화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수 있는 철도, 민간항공, 그리고 자원개발은 정부의 통제하에 그대로 놔둘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기간은 종3~5년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출판업인 민영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재정적자

실상 독립국가연합의 급진개혁 정책이 단기간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곤란하다. 독립국가연합이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는 국가재정파탄, 외화고갈,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피폐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구소련의 단일경제권이 붕괴돼 자원 및 인력조달, 판매망등이 깨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1991년 소련의 국민총생산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20% 감소로 나타났고, 수입 45%증가, 수출 13% 감소, 인플레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재정적자는 1천5백억루블에 이르고, 대외채무 7백억 달러 중 작년 상환 몫은 1백7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적 자생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자도입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러시아 공화국은 외국투자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해 환율구조의 개선과 루블의 태환화를 이루려고 힘쓰고 있다.

루블의 태환화(국제적 교환화)

루블을 태환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안정기금으로 충분한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결국 루블의 태환화를 위해 통화안정기금이 필요하고 이 통화 안정기금은 현실적으로 외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루블화가 태환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곧 러시아 공화국등, 이에 합의하는 몇개의 공화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IMF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급속하게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되는 길을 제공받으며, 러시아 공화국등 몇몇 공화국이 완전히 서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개혁파간의 정치적 갈등

옐친의 주요지지 세력중 하나인 '민주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분열을 거듭하였다. 유리 아파나셰프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경제개혁의 중심이 되어온 최고이론가 아벨 아간베기안과 스타니슬라프 샤탈린, 가브릴 포포프등도 옐친정부에 등을 돌렸다. 바딤바카틴 전KGB의장, 샤탈린 등은 루테이다 발발에 대한 경고를 한바 있다. 이는 당면한 사회폭발적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 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를 경시할 경우 더욱더 가혹한 사회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독립국연합의 경제적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낼수 있는 대안을 갖지 못한채 벌어지는 정치적 격변은 그 나라를 더욱 더 엄청난 혼란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소련의 관료들에 의한 '재산도피' 사태 역시 자못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출된 외화의 액수가 구소련 총외채의 4분의 1인 2백억달러에 이른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또한 금보유액수도 기존에는 2천억불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근 2백~3백억불밖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약 2천억불에 이르는 금보유량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급진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관료주의의 잔재속에 러시아공화국은 자본의 불법 국외유출등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소련연방의 붕괴는 유통구조의 붕괴를 가져와 공화국 상호간에 물자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독립국연합은 공동의 경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해내지 못한 채, 개혁을 맞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Ⅲ. 독립국연합의 장래

구소련이 해체되고 탄생한 독립국 연합의 장래를 세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점쳐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독립국연합이 완전히 해체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개별 참가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줄이지는 못한다. 이 경우 두가지 가능성으로 유고슬라비아처럼 군사적인 충돌만이 존재하는 것과, 그와 같은 내전상황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각 참가국내부의 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되어 그 결과 전쟁보다는 완화된 대립형 모델로 만들어진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독립국 연합이 새로운 국가통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새로운 중앙안에서 상호이익 확보가 증가할 경우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각 참가국은 서로의 입장과 상호의존성,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권한 일부를 중앙에 이관할 것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독립국연합이 완전히 붕괴하여 버린다. 중앙아시아는 범이슬람주의의 영향하에 놓이고 유러시아도 독일과 폴란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현실속에서 시비가 판단되리라고 보이지만 이중에서 두번째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독립국연합이 맞고 있는 경제, 정치적 상황은 위기상태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통의 중국적인 모습이 역시 독립국 연합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모양을 띨지도 의문스러운 일이다.

구소련의 붕괴와 해체가 역사적 필연성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새워질 새로운 독립국연합의 모습도 역사적 필연성속에서 이루어 지리라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진통의 폭이 너무 크고, 독립국연합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헤쳐갈 당사자인 독립국연합 국민들에게 지금 시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땀과 지혜일 것이다.

하계영어연수희망자 모집안내

1. WARWICK 대학교(영국)
가. 일정(예정)
(1) 서울출발;1992. 6.27
(2) 사전견학;1992. 6.27—7. 4
(3) 어학연수;1992. 7. 6—8. 7
(4) 유럽여행;1992. 8. 8—8.14
(5) 서울도착;1992. 8.15
나. 연수경비(예정)
(1) 숙식비;$1,982(1인1실)
(2) 수업료;$865
(3) 문화행사;$261
(4) 관리비;$64
(5) 항공및 여행경비;$2,700
(6) 업무추진및 수속, 관리비;$250
※총소요예상경비:$6,122
다. 연수코스(예정)
(1) 서울출발—프랑스 파리—런던 도착
(2) WARWICK근교 주말관광
(3) 런던—이태리 로마—스위스 알프스
(4) 독일 하이델베르그, 로텐탈이 관광
(5) 프랑크프르트—서울 도착

2. BERKELEY대학교(미국)
가. 일정(예정)
(1) 서울출발;1992. 7. 5
(2) 어학연수;1992. 7. 6—8.13
(3) 서부관광;1992. 8.14—8.22
(4) 서울도착;1992. 8.23
나. 연수경비(예정)
(1) 숙식비;$1,549(2인1실)
(2) 수업료;$1,050
(3) 신청료;$50
(4) 건강보험;$50
(5) 항공및 여행경비;$2,500
(6) 업무추진및 수속, 관리비;$300
(7) 기숙사 예비비;$70
※총소요예상경비;$5,569
다. 연수코스(예정)
(1) 서울출발—LA도착—버클리연수
(2) LA관광—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
(3) 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
(4) 하와이—서울 도착

3. 모집기간및 인원
(1) 기간;1992. 4.13—5. 8
(2) 인원;각 대학교 선착순 30명선
4. 접수처
(1) 서울 캠퍼스 학생처 취업보도계
(2) 용인 캠퍼스 학생처 학생과
5. 구비서류
(1) 해외연수지원서 1부(학생처비치)
(2) 학부모 동의서 1부(학생처비치)
(3) 여권용 사진 12매(수속시제출)
(4) 여권수속일체 서류(수속시제출)

6. 기타
(1) 교육교류협정에 의해 교양영어, 제2영어, 교양선택중에서 3학점을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2) 여권및 비자는 일괄 학생처에서 발급 절차를 밟는다.
(3) 정확한 경비및 세부일정등은 확정시 추후 통보할 것임.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학생처에 문의할 것

학 생 처 장

'92 대학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1학년(00명), 2학년(00명)

2. 지원자격

4년제(1학년)	3년제(2학년)
○ 70.1.1—76. 1. 1. 출생자 ○ 해 대학입학성적이 전체의 2/3이내인자	○ 69. 1. 1—75. 1. 1 출생자 ○ 대학 1학년 성적이 B학점 이상자

3. 지원서 교부및 접수
92. 4. 1—5. 20(학군단 행정실)

4.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시	신체검사시
○ 지원서및 서약서 …1부 ○ 1학년 성적증명서…1부 ○ 사진(4×5CM) ……2매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진(4×5CM)……3매

5. 선발:대학입학 1학년 성적,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

6. 합격자 발표:92. 8.26

7. 특전
○ 학군 또는 학사 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시 우대)
○ 대학 졸업시까지 군 장학금 지급
○ 장교 임관시 희망병과 우선 분류
○ 대기업체,우대선발 및 취우

제119학생군사교육단장

PKO, 미·일의 동상이몽

외대논단

최 형 식
〈본교 대학원 아주지역학과 2학기〉

'유엔평화협력'을 명목으로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주장하고 있다.〈사진:타임〉

우리 나라에서 시끄러울 때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손바닥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그 때에 일본에서도 PKO의 법률안 통과를 놓고 여당인 자민당 의원이 통과를 선언하려고 하자 야당의원들이 와 하고 몰려드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쳤다. 우당탕 거리며 단상으로 달려가는 야당의원들이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9시 뉴스를 타고 전국안방에 보내진 영상은 과히 토픽감이었다.

이 일이 있고 얼마후에 신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발을 내디뎠다", "일본 군국주의 노골적으로 드러내 ./"

이러한 제목으로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말 군국주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런 반대도 없었다. 이로 인해 자위대는 페르시아만에 기뢰제거를 함단을 파견 소해모함1척 소해정4척 보급함1척이 34개의 기뢰를 제거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군국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는것도 바로 미국에 의해서였다. 한국에서 6.25가 발발하고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주일 미군의 대다수가 파견되자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내각에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독려했다. 이에따라 1950년 7월8일 7만5천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미국에 의해서 생긴 자위대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도 미국에 의해서 였다. 미국은 분명한 두 가 것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80년대 이후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의 폭이 컸최고, 이에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더 많이 쓸도록 압력을 가했다. 다시말해서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 군비를 증강하게 되었된 것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성장과는 달리 퇴조의 길을 걷는 미국 경제는 비참할 정도다. 미국은 5.7%에 달하는 실업률을 재정적자로 인해 순채무국이란 오명을 씌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일본에게 무기를 파는 것도 미국의 경제에 있어 일종의 도움이 된다고 하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겠다는 추측도 일리가 있다. 게다가 일본이 최근 전행시키고 있는 PKO법을 기한내(6월까지)에 타결하겠다는 미야자와 수상의 담변이라던지, 자국민을 구한다는 명목이지만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해외로 자위대가 나설 수 있게 한 일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미 일본은 군사대국이다. 지금 세계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군국주의로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군국주의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걱정스러운 단계에까지 가기전에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했던 것도 미국이요 군비의 증강을 요구한 것도 미국이다. 또 위험한 수준에서는 막는 것도 미국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옳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쉽게 자기 아닌 타국이 크는 것을 봐두지않을 것이다.

"일본을 군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정보대국이라 하고 싶다" 이는 한국 특파원을 지낸 NHK논설위원 이에바씨가 한 말이다. 한국은 일본을 군사대국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실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자신들 나름의 경제에 걸맞는 정치 군사의 주권을 찾아가려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순서다. 이들이 경제, 정보의 대국으로서 막강한 나라로 아시아에 등장한 지금, 그들을 자극하는 일보다 일본을 이용해서 정보력을 얻어내야 한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익을 위해서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미국, 무기팔아 경제난 해결위해 일본에 재무장 촉구
일본, 미 군비축소와 소연방 해체로 군사 대국화

의문스럽다. 그러나 자위대 파병을 통해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분상 구실거리가 되고 있는 PKO(Peace Keeping Operation)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PKO를 풀어 설명하면 유엔평화협력법안이다. 즉, 일본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걸프전 이후이다. 일본은 다국적군으로 참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이러웠다. 평화헌법 9조와 일본내의 여론을 물어 참가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전비로서 특별세를 걷어들여 90억달러를 미국에게 넘기겠다. 이 금액은 모든 일본인이 한 사람당 1만엔(5만5천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걸프전 종전이후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고 이에 일본인들의 여론은 변하기 시작했다. 걸프전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던 여론이 바뀌어 오히려 걸프전에 이미한 일이라도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해상 자위대가 소해정을 파건할 때는 아무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본의 군비증강을 요구했는데 그 하나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른 군비축소에 대비할 필요성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정 무역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했던 것이다.

실제로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해빙무드는 전세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을 정도였다. 그동안 미국과 소련으로 대변되어온 양대 극전영은 사라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에게는 더이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걸과를 만들고 말았다. 세계의 유일한 군사강국 미국으로서는 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비만을 늘릴 수 는 없게 되었다. 결국 군비축소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 해야하는 단계에 왔다. 미국의 군비축소는 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본의 군비증강을 요구했다. 이미 이러한 노력은 오래전 부터 있어 왔다. 미국은 '안보무임승차론'을 들어 일본의 방위비를 2~3%수준으로 늘리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한 때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1%를 넘는 데 이러한 불 수 있다.

일본으로서도 미국에게서 무기를 매입함으로써 무역마찰을 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미국의 의도와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군·산복합체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미국의 상대적 국력약화, 소연방의 해체로 인한 힘의공백을 메워 자연적으로 막강한 군사대국이 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문제는 일본군비확대가 양적 질적으로 세계의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데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GNP의 5.7%를 쓰고 있는 데도 GNP의 1%를 쓰고 있는 일본의 군비예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나타난다. 일본은 우리의 3배나되는 군비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기와 군비증강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출현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

생활속에서

1932년 9월 20일 영계국주의 치하의 인도 감옥에서 깡마른 63세의 노인이 '힌두교도, 회교도, 카스트별 분리 선거법 제정'에 반대하는 옥중단식을 전개한다. 이미 그는 16차례의 각종 단식투쟁을 경험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정치적 협박'이라고 비난하는 총독에게 '단식은 정의를 위한 최고 법정에의 상소'라고 당당히 말한다. 7일 뒤인 9월 16일 분리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답장이 노인, 간디에게 전해진다.

최근들어 우리들은 동독급 투쟁의 현장에서, 통일운동·노동운동의 현장에서, 혹은 집 옆교회의 낡은 포스터에서 조차 '단식'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단식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굶는 것' 이라 적혀있다. 그러나 단식투쟁은 '의식적으로 배를 곯는'차원이 아니다. 단식투쟁은 물리적 형태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다분히 동양적인 투쟁의 형태이다. 단식투쟁은 투쟁의 대상에게는 위협을 느끼게 하며, 동료와 세인들에게는 투쟁의 필요성과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 속에서 단식투쟁으로 인해 절명하신 많은 분들을 만난다. 조금 멀리는 '일본의 쌀을 먹을 수 없다'며 대마도 옥중에서 절명하신 구한말의 일사 최익현 선생에서, 가까이는 광주민중항쟁 이후 구속되어 항쟁의 위상과 교도소내 인권문제를 위한 50여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사망한 '광주의 넋' 박관현열사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생명을 걸기까지하는 단식투쟁이 승리했을 때—사전·사후를 단단히 준비한다는 전제하에—그것은 주로 두가지의 성과물로 정리된다. 그 첫째는 우선 투쟁의 성과물일 것이며 두번째는 건강의 성과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식투쟁의 부산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식은 신체의 신·구 교체를 촉진시키고 낡은 세포와 병든 세포를 몰아내며 신체의 산소보충능력을 증대시키고, 노폐물의 배출까지를 극대화시킨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는 것일까? 물 밖에는 먹는 것이 없는데…. 신체는 자신의 조직, 기관, 세포 중의 일부를 자가 융해시켜 얻어지는 영할 물질로 생명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낸다(그러나 신경조직, 뇌조직 등은 손상되지 않는다). 이때 사실 몸에 있어 그다지 쓸모 없는 지방이 가장 먼저 융해하게 되는데 포도당의 사용이 극대화 되므로—이것이 단식투쟁으로 탈진한 이에게 포도당을 먼저 주사하는 이유이다—혈액의 산성화가 진행된다. 이와같은 단식투쟁의 진행과정에서는 공복통, 구역질, 부기력감, 권태, 이지럽증 등의 증상들이 사람에 따라 짧게는 1~3일에서 길게는 6~10일까지 밀어닥치게 되는데 이는 임신초기의 입덧과 비슷한 현상이어서 불안정한 증상들은 이내 물리가게 되고 평온한 상태를 얻게된다. 이것은 육체가 그 기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단식중 단식전 체중의 20% 이상을 잃게되면 일반적으로 기절의 상태에 접하게 되며, 40% 이상을 잃으면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영양 섭취가 안되어서라기 보다는 잘못된 '단식'투쟁의 진행과정에 기인한다. 단식중에는 금연, 금주는 물론 카페인 등이 함유된 홍분음료(커피, 홍차 등)는 절대 금물이며 주사나 약물 등은 금지된다. 또한 누워있는 것 보다 간단한 노동은 권장할 만하다. 사실 단식투쟁 기간보다는 이후의 식생활이 더욱 건강을 해치게된다. 단식을 풀게되면 조미료, 육류 등을 일정기간 금해야 하며 식사로는 죽의 양을 체중에 비례해 먹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걸핵, 간질환, 소화기질환, 당뇨병 등의 증상을 가진 이에게 있어 중장기간의 단식투쟁은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성과 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알려두고 싶다.

우리에게는 의식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며 나서야 할 단식투쟁의 장과 푸른한 두팔로 맞서야 할 보다 넓은 투쟁의 장이 동시에 열려있지 않은가.

서완수(서학·이태리어2)

헷 글

■노동조합 고소·고발·구속·해고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노동인원회관련, 김선수 변호사 감수)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향유하고 누릴수 있다.

이 자료집은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발·구속·해고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방법에 관해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책은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펴냄. 3천원〉

앞 터

■제20기 정치학교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이하 사민청) 주최로 사상적 혼란을 극복하고 과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정치학교가 문을 연다. 민중해방과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기간—4월17일부터 6월2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접수기간—4월6일(월)부터 4월20일(월)까지

▲접수처— 사민청 민중교육위원회(문의전화:745—7424)

▲수강료—3만원

1. 4월17일:강의를 열며(사민청)
2. 4월21일:이 시대의 민중 어떻게 살 것인가?(조정우·변혁운동가)
3. 4월24일:변혁운동과 사민청의 임무(오길재·사민청 부의장)
4. 4월25~26일:얼다지기 수련회(사민청)
5. 4월28일:남한 독점자본의 축적과정(김성진)
6. 5월1일:남한 국가권력과 독점자본, 그리고 재벌당의 출현.(박영수·한국정치연구소 회원)
7. 5월5일:6공 정권의 지배전술과 보수대연합(조정우)
8. 5월8일:지배계급의 대중문화 지배양태(김형수·시인,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원)
9. 5월9일(토):현장노동자와 함께(사민청)
10. 5월12일:남한사회 민중민주변혁의 내용과 방향(오세철·연세대 교수, 민중회의 준비위원장)
11. 5월15일:올바른 민중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유초하·충북대 교수)
12. 5월19일:총선평가와 대선시 민중 운동진영의 대응방침(허경식·사민청 정책위원장)
13. 5월22일:요즘 물가./ 왜 오르는가?(정건화·한신대 강사)
14. 5월26일:6공화국의 노동통제 정책과 92년 노동운동의 전망(배성진·서울노련 사무국장)
15. 5월29일: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의 패권전략(최형록·민중회의 기관지 편집위원장)
16. 6월2일: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중의 통일운동(정대화·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성과배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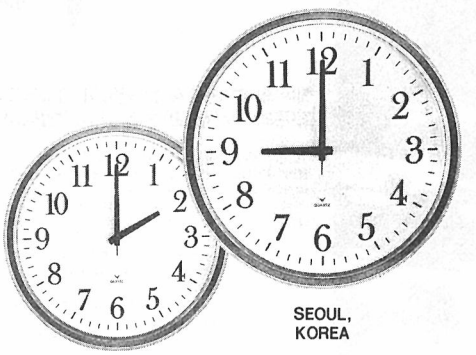
소금상자

성과배분제는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연말에 특별상여금, 주식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제도로써 총액임금제의 일환인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나 기업측은 이 제도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에맞춰 최근 각 기업은 연초 임금협상 단체교섭시 임금인상분을 낮추는데 이 성과배분제를 구실로 삼고 있다. 즉, 성과배분제는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지불을 강화하여 파업을 줄임으로써 생산을 높임과 동시에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자본측의 논리로 파악되어진다. 한편, 이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소지가 크다는 데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성과배분제를 포함한 총액임금제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의도는 결국 임금격차해소가 아닌 임금인상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1월 입사
해외사업부 동유럽지역 담당

김철환

김철환氏의
"7시간 늦게 가는 시계"



헝가리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에서 —
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
곧 이륙할 09 : 00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내에서
지난 열흘간의 출장을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다뉴브 강변을 몇번이나 지나치면서도
신선한 강바람 한번 맘껏 쐬어보지 못한 만큼
바쁘게 보낸 10일간의 헝가리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많은 나날들 —

처음 동유럽 수출팀에 배치받았을때 —
1989년 1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배치받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동유럽팀」.
당시엔 '아직 수교도 안된 공산권으로
과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떤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었죠.

마침내 소련으로 처녀 수출!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월,
마침내 우리는 당시 공산권의 대국 소련에
처녀 수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뒤이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이젠 동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의 자랑스런 차가
달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발 서울행 여객기에서 —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환한 아침인데
손목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아직 제 시계만 헝가리 시간이었군요.
시침을 다시 7시간 앞당겨 놓으며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차, 세계의 차
HD 現代自動車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①

불붙은 임투, 노동자의 사활건다

지난해 하반기에 결성된 'ILO 전국 공대위'를 중심으로 임투를 전개하고 있다

총액임금제 저지투쟁으로 전국적 투쟁전선 확립해야

노동절 깃점으로 노동자 대투쟁 집중될 듯

민주노조진영은 92년 벽두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87년 노동자투쟁이 있는 직후 전열을 정비한 정부·자본의 4년여동안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융단폭격으로 말미암아 현격이 떨어져 버린 조직력은 그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생각해 낼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노동자에 대한 개별경쟁의 강화와 고용문제를 발생시켜 노동시장의 변화를 도모하는 말전된 노동통제방식(이는 현재 '총액임금제'로 대변된다)의 도입은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대한 참여를 현격이 떨어지게 만들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민주노조진영이 92년 임투를 복전에 투고 할 수 있는 일은 1월의 현대자동차 성과배분 투쟁에 막연한 기대를 걸거나, 총선풍 객관적인 정세의 호전을 바라보는 것이 고작 전부였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노동자의 정치세력으로 성장은 너무도 절박한 요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 민주노조진영의 상태는 대중적으로 정치관력 정악을 위한 투쟁에 나설만큼 발전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아마도 정치조직의 뚜렷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치자로 쌓배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은 자신들의 고유한 계급적 요구를 내세운 투쟁을 통해 대중의 의식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면서 정치세력화의 광범위한 토대를 닦아, 진보진영이 정치세력화에 대한 측면지원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뿐이었다.

그런데 정치조직이 통일과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의식의 성장이라는 총선투쟁의 필요조건을 무시한 채 정치조직들은 각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거투쟁에 임했고 그나마 공단지역은 후보마저도 난립시켜 '도토리 키재기'를 시도함으로 인해, 민주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의 10%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운신의 폭을 제한하여 총선을 패배로 이끄는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1월초 현대자동차노조 투쟁도, 총선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성과도 남겨두지 않은 채 끝나고, 이제 민주노조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은 정치조직의 실수에는 냉정하지만 그것만을 나무라고 있지만은 않다. 대중 자신의 객관적 치지로부터 운동을 탄생시키는 민주노조운동은 자생적으로 '총액 5% 임금억제 정책 저지투쟁'으로 자본·노동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시키고 있다. 매년 임금억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정부관련 공공부문노조'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이 투쟁은 이에 호응한 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노조등 민주노조를 총망라해서 5백인이상 대기업 5백여 노조가 '총액임금제 저지'전선으로 집결하고 있다. 항상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려는 자생적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책, 그리고 전술을 통해 이 투쟁을 목적의식으로 이끌어 당면한 민주노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게 하느냐이다.

현재 민주노조의 92임투는 현시기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며 전국적 투쟁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총액임금제 저지투쟁'과 '고용보장투쟁'을 딛고 나아가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2주정도가 늦춰진 임투는 4월10일에 있었던 '총액임금제 저지'투쟁에 힘입어 4월하순에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 5.1절 투쟁을 경과하면서 한껏 세를 과시, 그힘을 바탕으로 5월 중순정도에서 파업투쟁등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일정 속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처, 고용안정보장투쟁도 현재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투쟁이 발생, 5월 총력투쟁과 결합될 것이다.

5월중순에 있을 총력투쟁에는 '임금억제정책 철폐' '노동통제정책 철폐(성과급·능력급제 도입기도 분쇄)' '고용보장' '노동운동탄압 분쇄및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집결, 이후 6월에 있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맞춰 '민주노조 합법성 쟁취'등 노동법개정투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92임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달리 새로운 단일조직 건설'의 열풍을 기대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석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선전부장〉

대격돌을 알리는 신호탄, 조직사건

반공이데올로기 유포로 국민들이 보수화심리 자극

총선 전후한 조직사건, 정치적 격돌기 앞둔 전초전

3·24총선을 전후로하여 일련의 조직사건들이 연이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22일(토) 본교를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주의자(이하 IS) 조직 사건이 검찰에 의해 발표 되었다. 이번 사건은 대심리의 한 민박집에서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여성해방론'에 관해 토론을 하던중 IS조직의 몇몇 지역팀이 2백여명의 전경들에 의해 연행되면서 시작되었다.

90년 가을 5명이 조직을 결성하면서부터 건설되어진 IS조직은 직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적 중핵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전개하여 왔으며, 조직원 확장사업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4월10일(금) 현재까지 총40명 연행, 19명이 구속(본교 7명포함)되어 있으며 수배상태에 있는 학생들도 더 있어 잇다라 구속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IS에서는 본교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마련하였으며 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지지와 연대'라고 하는 소식지를 계속적으로 발간하며 이후의 대응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IS사건과 같은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89년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동구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전체변혁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둘째로는 시기가 총선을 전후로 한 점에 비추어볼때 그이느 조직보다도 노동자들을 중요시하고 옹호하는 조직인 IS를 탄압함으로 인해 총선 이후 도래할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조금이나마 위축시켜 보려는 조직을 구성하여 주체사상을 하슴했으며, 안양지역의 노동자들을 부추겨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고 경찰측이 발표하면서 8명이 구속(대신대 2명포함)된 조직사건이 터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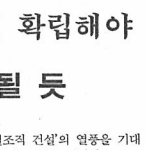
이번 사건은 운동역량이 다른 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안양지역을 탄압해 옴으로써 정권에 대한 대응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공단지역이 밀집해있는 이 지역에서 점차로 고양되기 시작한 노동운동을 초기에 진압해 보겠다는 정권의 의도가 있었음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종대씨도 구속되었는데 이는 총선 이후 4·5월투쟁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쐐기를 박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구민중당' 정책실에서 일하던 구민회씨를 구속한 것등은 진보세력의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한 총선을 전후로 해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일련의 조직사건들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정권의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의 방식들이 조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자주·민주·통일'(자민통)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혁노맹) 조직사건 등은 국민의 보수화 심리를 자극하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탈출구로 이용해 왔거나, 운동진영의 침체기에 집중적으로 조직사건을 터뜨려 운동진영으로부터의 저항을 말반으면서 타격을 입히는등의 방식을 취해왔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와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 92·93년이라는 정치적 대격돌기를 앞두고 정권은 그들의 안정적인 정권승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운동진영에서도 남한민중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복수한 상황하에서 현정권이 계속적으로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종전까지의 물리적 탄압에서 이제는 끊임없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유포 작전으로 그 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권동순 기자〉

인터뷰



총액임금제·저지를 위한 노동조합 대책위 소집책임자 임희빈 힐튼호텔노조 위원장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4월10일(금)에 출범되었는데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92년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총액임금제〉가 노동계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전노협 등이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 허울만 좋은 임금억제정책인 총액임금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국태의연하게 공권력 동원을 운운하며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노동계 및 여론의 반발을 피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노협, 업종회의 등으로 구성된 「ILO기본조약 비준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책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위를 공식화하는 한편 총액임금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총액임금 5%억제 대상 업체1천3백4개중 노동조합이 있는 4백26개 노조가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해 서명을 했는데 92년 임투준비 상황과 향후 노동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정권이 이처럼 무리하게 총액임금제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저들의 본질을 헤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투강제를 통한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써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을 저들은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로 교란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 총액임금제가 관철되면 이후 순서는 직무직능급제의 실현으로 노동자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노동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다음에는 연봉제로 전환시키려 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의 교섭이 개별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전락하여 집단노사관계약화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92년 상반기에는 총액임금제 철폐투쟁,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자사업장별, 업종별노조가 연대하여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권력과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봉제 정책을 더욱 고도화되리라 예상되며 이를 분쇄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총노동자의 단일한 대오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향후 노동운동의 관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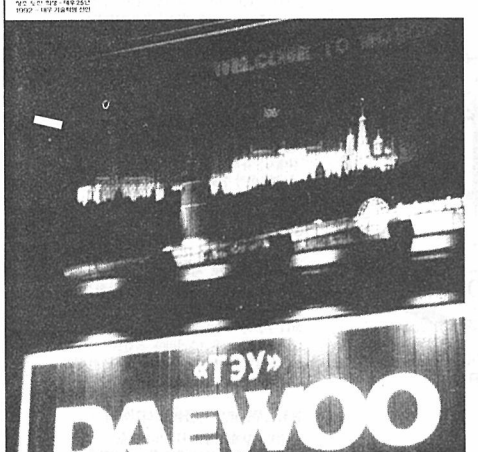
△전노협과 노총과의 관계속에서 대책위 소집책임자로써 개인적으로 임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91년 임투때에도 정부에서는 한자리수(10%) 임금억제 정책을 펴고나,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금 인상율은 평균 18.8%의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때서 정부와 사용자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하나로 묶어야만 한자리수 임금억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총액임금제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희 호텔의 봉사료는 총액임금제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총과 전노협, 개별노조 가릴것 없이 천만 노동자가 연대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꾸려감으로써 4월말~5월초에 쟁의발생을 집중시켜 단위노조 차원에서 총액임금제를 확실하게 저지해 낼 것입니다.

〈류상준 기자〉

"상반기에는 총액임금제 철폐투쟁,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



■ 그곳에 우리는 왜 가는가? 한국경제의 세계화만이 우리기업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사진은 모스크바의 아경을 배경으로한 대우의 옥외광고)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고,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입니다.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는 좁은 울타리를 박차고 타 문명세계에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국제시장을 향해 대우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1960년대—

그때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이같은 타국가들의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내부에 팽배해있는 절망감은 오히려 희망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과 5명의 직원과 자본금 5백만원으로 시작한 대우는 세계는 넓고, 그 세계와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대우의 돌풍은 타기업의 국제화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을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단어는 대우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대우가 창업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 뜨거운 집념을 보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만이 우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그렇게 할 때 연쇄가 대우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개발 차원에서 곧바로 해외지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무역업체가 세운 최초의 해외지사로 기록되는 대우의 시드니 지사와 싱가폴 지사—이 두 지사는 도전정신과 용솟음치는 젊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우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인지사로 출발한 싱가폴 지사의 차장이었던, (주)대우 유영석 사장은 초창기 대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1인지사. 말만 들어도 참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지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도맡아서 정신없이 뛰어 다닙니요. 그래서 '고독'이나 '외로움'같은 말을 떠올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뿐아니라 모두들 해외개척의 화신들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이었고 대우였지요.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첫번째가 대우의 74번째

동구권 시장개척은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80년대 말 동구의 개방과 개혁의 흐름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연이어 소련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우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 최초로 동베를린 지사를 개설했습니다. 대우의 74번째 지사인 동베를린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권 무역지사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사에도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 구 소련의 모스크바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도 지사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해외개척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으며, 오늘도 닫힌 세계를 열린 세계로 만드는 대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대우가 갈 수 없는 땅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럽의 심장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경제의 상징 북경을 거쳐 과거 '천의 얼굴'의 관문이었던 하바로프스크에 이르기까지 대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넓은 해외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우의 81개 해외지사 — 전 세계에 걸쳐진 대우의 일터에는 오늘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오지에서 우연히 르망차 한 대를 목격 했을 때 어떤 감회에 사로 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판 차가… 뻐엉하고 가슴을 찌르지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는 대우 자동차 한 대를 쳐다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주)대우 주호석 이사의 말처럼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시장개척의 처원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한 예로, 리비아는 과경화로 우리나라 당시 북한공관이 설치되어 있던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석유부국이었지만 축적된 기술이 없어 해외기업을 통해 건설사업을 해결한다는 기회를 포착, 대우는 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무릅쓰고 리비아 건설시장에 본격 상륙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대우가 최초로 수행한 가라우니스 의과대학 신축공사를 계기로 호텔, 고속도로, 비행장 등을 수주했고 '80년대에는 트리폴리와 벵가지에 1만 3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우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그 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1년에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총수주액의 38%를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우조(Auzou) 비행장을 건설할 때에는 철부각료들이 예고없이 건설현장을 방문, 10여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기도 해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의 의지를 심고 민간사절로서의 몫을

외대 문예운동의 대중적 조직화를 위하여〈마지막〉

'척박한 문학풍토'의 막을 내리자

'한편의 문학작품이 때에 따라서는 읽는 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문학작품이 읽는 이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세계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지향을 증폭시켜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예의 본성이자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의 힘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작용한다. 즉 사람들은 문학작품의 창작활동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형상화하게 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문학활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삶과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문학활동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교에서의 문학활동 현황들을 살펴보면 그리 체계적이지도 내용성이 풍부하지도 못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본교의 문학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학생대중들이 문학활동의 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 그럼으로 해서 개개인의 자주적 요구를 문예를 통해 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층 문학소모임의 건설과 강화를 위해 현재 활동중인 문학 동아리 성원들과 각 단위 문학부의 연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교 문학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본교에는 문학활동을 위해 꾸려진 모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작품창작활동과 문예이론 학습을 병행하면서 활동을 하는 곳은 서울캠퍼스의 '외대문학회'와 용인캠퍼스의 '사월문학반'정도에 불과하고, 과단위 문학회가 양캠퍼스에 각각 2~3개가량 존재한다. (여기서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학회는 논외로 한다)

대부분의 과단위 문학회는 아직 창작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문예이론에 대한 학습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교의 경우 문학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지향이 그리 높게 발현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지향을 가진 학생들조차도 조직적으로 꾸려지지 못한 상태이다. 87년 이후 문학활동 부문은 소재와 풍물의 활성화에 만해 문학활동 인자들의 양적인 측면을 따져 볼 때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 문학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중의 문학적 지향과 요구를 수렴하여 대중적 문학소모임을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는 "문학활동의 개인주의적 성격이 현재의 문학회(패)에 대한 외면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문예인자는 올바른 형상화작업을 해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개인적인 문예이론학습이나 창작작업은 그만큼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문예운동에 있어 매체별 연합체건설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교는 문학회에 있어서 연합체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보다 시급한 문제인 기층 문학회의 건설·강화를 위한 방안부터 생각해 보자.

기층 소모임의 건설과 강화·연대가 필요하다

91년, 92년 2회에 걸친 '문예한마당'을 통해 문학회 연합의 논의를 시작, 현재기층 문학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국대의 경우는 기층조직건설의 모범을 보여준다. 건대문화예술학생연합건준위 산하의 문학회연합 준비팀은 3개의 문학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 3개의 동아리 성원들이 각 과문학회와 연계하면서 문예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문예이론 학습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문학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학우들을 조직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동아리 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문학회연합이 건설될 전망이다.

본교의 경우도 기층 조직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활동중인 동아리나 과문학회 학생들과·단대·총학생회 문화부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총학생회 문화부에서는 문예일꾼들을 위한 문예학교를 통해 이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문학회건설·강화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현재 존재하는 문학회 성원들은 연계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교환·결집시켜 내고 과단위 문학회를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겠다. 또한 문학활동을 단지 '취미생활'이나 '여가이용'등으로 인식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나 지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끌어올기기 위해서는 과·단대 문화부의 역할(조직건설 제기)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대중들이 문예를 통해 자기인식과 실현에 대한 요구를 채워가려는 노력이다. 혼자서도 책을 통해 문예이론을 학습할 수 있고, 창작활동을 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분명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꼭 '동아리'나 '문학회'라는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 문학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학활동의 질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문예는 힘있는 무기가 되어 대중앞에 그 본연의 가치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적인 삶을 개척하는 문학활동

문학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문학을 통한 자기실현과 운명개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학활동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굳이 창작활동이 아니어도 괜찮다. 한편의 시와 한권의 소설책을 통해 현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 보자.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그것이 바로 문학활동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창작활동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다. 주체적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만 존재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제 자신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닌 적절 발로 뛰는 문예일꾼으로 변화시켜 나가자.

'진정한 글쓰기는 쓰는 사람의 자기해방의 과정이자 동시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속한 그 집단의 자기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의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외세와 분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민족의 해방의 과정이며 민중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급·계층의 자기해방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글쓰기가 소수의 것이 아닌 대중의 것으로 되돌려져야 하는 필연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문예창작단(가칭) 발기취지문 중에서)

〈황효순 기자〉

기획연재를 마치며

문예를 손에 쥔 학생대중들의 힘있는 모습이 심금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문예에 대한 지향과 요구의 증가는 본교에서도 문예운동의 점차적인 활성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대중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우고 각 단위 문예소모임을 내용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4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통해 본교 문예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중적 조직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 보았다. 지면 사정상 노래·풍물·문학부분에 관한 점검밖에 하지 못했고,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속시원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도 미흡함이 많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예에 대한 관심과 지향을 가진 학생대중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아닐까 한다. 특히 본교에 있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예동아리나 과단위 소모임 성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노래나 풍물운동은 기층 소모임 결성과 아울러 현재 자생적으로 생겨나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 있어 문예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강화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문학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생회 문화부와 문학동아리 성원들이 연계를 가지면서 기층소모임을 건설해 갈 수 있어야 겠다.

'척박한 외대 문예풍토'

이제 더이상 누구도 답연시 내맡는 말이 될 수 없도록 외대인 모두가 문예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질 때 92·93년 청년학생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은 튼튼한 기층 문예조직을 기반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글싣는 순서

1. 92년 학생문예운동의 역할과 본교 문예운동의 현황
2. 본교노래운동의 현황과 대중화·조직화 방안
3. 본교풍물운동의 현황과 대중화·조직화 방안
4. 본교 문학운동의 현황과 대중화·조직화 방안

제2회 언론사 노래패 합동공연 「동트는 그날까지」를 보고

노래를 타고 오는 민주언론의 함성

우리에게 기성언론의 모습은 편파·왜곡 보도라는 좋지 못한 인상으로 먼저 다가온다. 그것은 언론민주화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언론통제로 그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전 4월, KBS 언론노동자들이 서기원 사장 퇴진을 외치며 이른바 'KBS 민주화 투쟁'을 벌인 이후 많은 언론 노동자들은 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언론민주화'를 향한 힘겨운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듯 언론 노동자들의 각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마다 노조가 결성되었고 또 그 속에서 언론노동자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노래에 담아내고 노래를 통해 노조원들의 단결력을 고취한다는 목적하에 노래패가 각 언론사 노조마다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실로 작년 4월 KBS 민주화 투쟁 1주년 기념 노래공연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가 많은 언론노동자들의 호응속에 열렸고, 올해에는 그 두번째 공연 '동트는 그날까지'가 4월 10일(금) KBS 본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년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구속, 해고된 동지들의 뜻을 담아내어 더욱 힘찬 투쟁으로 나아가는 포문을 열어 간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3부로 나누어져 진행이 되었다.

제1부 '대동한마당으로'에서는 첫 공연과의 연속성을 살리면서 함께 모인 언론 노동자들끼리 노래를 통해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을 가졌고, 제2부 '불꽃, 불꽃으로 타오를…'에서는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왜곡·편파 보도 속에서 언론노동자들이 지켜내고 쟁취해야할 진실이 무엇인가를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서 그려내고자 했다. 이어 제3부 '해방의 그날까지'에서는 '민주언론만만세'를 합창하는 등 내일의 투쟁결의를 다지면서 이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다소 보였는데 우선 참가한 노래패가 한국일보 '노래합' 한겨레신문 '겨레의 소리' EBS '소리열음' 연합통신 '연울림'등 4개 노래패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고, 관객도 언론노동자뿐 아니라 학생·직장인도 많아 언론민주화 투쟁이 점점많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또 각 노래패 성원들이 새벽 2~3시까지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그들의 진지한 자세와 훌륭한 노래실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공연 진행이 다소 서툴러 중간 중간의 연결이 어색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내년 공연에는 첫번째, 두번째 공연의 오류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노래패들의 노래를 시종일관 따라 부르는 언론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언론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이 전노조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일부 노조원들의 관람만으로 그친 점이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각 언론사의 노래패들이 생긴지가 5개월에서 2년정도의 짧은 기간이기때문에 아직까지 노래패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현재 각 언론사 노래패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언론민주화'를 염원하는 정서를 노래로써 담아내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의 동호인적 모임으로 그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또한 일상적인 모임이나 사업을 이뤄내지 못하고 기념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연하는 정도로 그 활동이 그치고 있기도 하다.

언론사 노래패는 노래를 통해 '언론민주화'라는 의식을 전체 노조원들이 공유하고, 투쟁의 일기를 북돋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래 공연이나 발표를 통해 노래를 대중적으로 보급시키고, 언제라도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 노래 부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 노래패의 위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노조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노래가 생활화되어 결국 모든 노조원들이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을때 언론의 민주화는 앞당겨질 수 있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진실을 밝혀주는 언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영 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213) 선호

· 외세를 선호하다.

'선호(選好)'라는 말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찾글을 뽑이하면 '외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이 된다. 즉 외세 중 나쁜 것은 제쳐놓고 좋은 것을 고른다는 뜻으로,본래 의도한것과 다른 뜻의 말이 된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이러운 한자말을 만들으로써 우리의 말글살이를 어지럽히는 이와같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호'라는 한자말보다는 우리말인 '좋아한다'를 쓰인 것이 좋겠다.

용인캠퍼스동아리(우리말 가꿈터)

대우가족

을 남기려고 하는가!

록록히 해내기도 했습니다.

대우가 이처럼 개척하기 힘든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를 선택한데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민간외교의 첨병역할을 해내고자 함이며 나아가 한겨레의 가장 큰 소망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대우가 선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우가 창립 이후 꾸준히 지켜온 '공존공영'의 정신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은 미지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기술의 나라, 일본 입성(入城)

대우의 해외개척사는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뿐 아니라 선진세계 각국에서도 활발히 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우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최초로 일본의 최첨단 전자통신분야 연구단지인 소프트 리서치 파크(Soft Research Park)에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만들게 됨으로써 기술보호의 벽이 세계 최고로 높다는 일본에 대우의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미국 실리콘 밸리와 구 소련의 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술과 해외의 정보가 만나는 대우 기술창조의 선진 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캐나다와 호주에 대규모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 각국과의 대등한 경제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대우는 현재, 중국의 복주(福州) 냉장고 공장 설립, 헝가리의 은행 설립, 북한의 남포공단 조성 등 공존공영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를 진개하고 있으며 해외 43개 투자법인 운영과 더불어 39개의 신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전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해외시장 개척이란 한마디로 시작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라의 민속, 풍습,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비지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술이 능한 인도시장 같은 곳을 개척하기란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요. 인도에서 일한 지난 5년, 쩌는 듯한 더위와 풍토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생각하곤 했지요. 직보다도 더 열악한 오지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많은 우리 대우가족들의 소망의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까 하고요."라고 지시생활을 얘기하는 (주)대우의 도정원 과장 –

도과장의 말처럼 오늘의 대우가 있기까지 지난 4반세기 대우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대우인들의 땀방울이 알알이 스며 있습니다. 1980년대초, 북예맨 지사에 근무했던 김승천 대리(현재 대우자동차 부장)도 살아있는 신화를 갖고 있는 한 사람. 김대리는 그곳 주민들이 알라에게 예배할 때 썼는 '까트'라는 풀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까트를 제일 잘 썼는 외국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구역질을 참아가며 씹고 또 씹어, 마침내 임들라라는 거상(巨商)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김대리의 까트 씹는 폼이 예멘인들 보다 더 우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얘기는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쌓여있는 수많은 일화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89년 파나마 사태 때 살인과 약탈, 총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사의 상품창고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채 목숨을 걸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꼬박 비틴 파나마의 대우인들, 무디운 땡볕 아래 입 찰에 늦지 않으려고 온 몸에 소금기가 허옇게 끼도록 달리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도 음식에 소금넣기를 꺼린다는 대우인, 전쟁터를 누비며 낯선 땅을 개척하다가 머나먼 타국에서 스러져간 대우인…

이처럼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로 세계를 놀라게한 대우인들. 끊임없는 창조적 연구개발로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우리 기술인들. 밤을 밝혀 서류와 씨름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눈을 부릅뜨는 대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몸을 아끼지 않는 '도전의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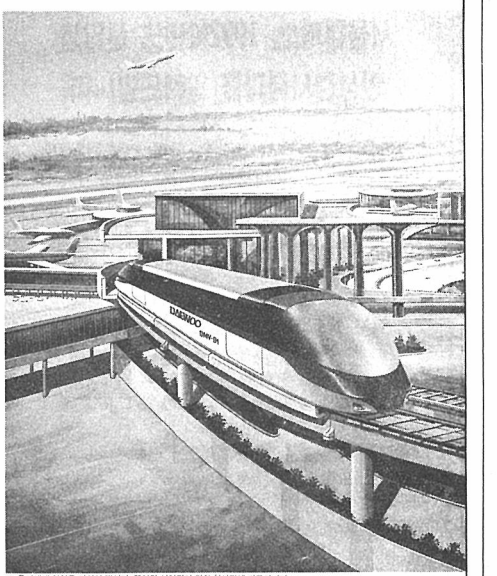
더 큰 가슴, 더 넓은 가슴,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이며, 대우가 변함없이 추구해 가고 있는 국제화의 길 – 좁은 국토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한 국제시장에 도전해온 해외개척의 의지,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의 행동철학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벼온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 도전, 희생의 대우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역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대우의 연면한 정신사(精神史)! 그것은 바로 더 큰 가슴, 더 넓은 가슴, 더 뜨거운 가슴으로 세계를 안으려는 여러분, 이 땅의 대학인들의 열정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한결같은 젊은 기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우, 여러분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 우리에게 위험은 기회일 뿐이며, 꿈이란 실천되기 위한 청사진이에 다름아니다
(사진은 꿈의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자기부상 열차 대우가 신학연 합동의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해 '92년 7월 40인승이 선보일 예정이다)

그림돋보기 - 외대인이 바라는 언론의 모습 설문조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11일(토)로 외대인의 눈과 귀인 외대학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았다.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요즘은 언론의 비중이 갈수록 더 커가는 동시에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 예로써 올해 동부의 전개상황에서 학교당국의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결정'등의 사안을 일간지에서 확대보도하여 학생들에게 언론이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외대인이 바라보는 언론의 위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언론이 지녀야 할 성격과 그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여기에 표기율이 높았던 순서대로 적어보면 객관성, 신속성, 다양성, 전문성, 진보성이다. 이 밖에 정확성, 대중성, 기사에 대한 책임감, 공익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응답에서 객관성이 단연코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여기서의 객관성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는 두번째 문항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두번째 문항에서는 언론의 올바른 보도자세를 질문하였다. '사건의 근본원인은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도자세'가 4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건의 현상적인 측면을 보도하는 자세'는 불과 1.79%로 나타나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의 자세로 생각하는 외대인은 드물다는 결론을 낳는다.

각각의 언론에는 고유의 논조가 있다. 언론의 본질적 의미가 자연과 사회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 욕구의 표현임을 알 때에 우리는 각 언론의 논조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을 함께 보도하는 자세'는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고 논조마저도 갖지 못하는 '각계 상이한 외견들의 취합'의 수준에 그치게 하는 자세이다.

다음으로 제도언론과 대비되는 대학언론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장 근본적으로 대학신문의 위상을 규정짓는 성격으로 꼽은 것은 '기사 내용에 있어서 사회 진보적 성격'이다. 대학신문의 이러한 성격은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이 내용적 성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특성을 토대로 한다. 대학신문은 독자층이 학내구성원으로서 안정하고, 그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고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현재 전국의 대학신문들이 잇달아 제작중지를 당한 사태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60%가 이러한 사태를 '언론본연의 특성인 편집자율권의 침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하였다. 여러 대학신문에서 발생한 마찰들은 대학 각각의 문제로써 개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역사발전의 시점에 진보적인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인 것으로 외대인은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잘 모르겠다'와 '기타'에 표기가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평소 언론의 문제를 특별한 관심이 없이 접하여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신문은 그 독자층이 학생들이고 그 물적토대도 학생들의 등록금이며 신문의 주인이 바로 학생들 자신임을 볼때, 우리는 좀더 많은 관심과 지지로 대학언론탄압의 의도들을 분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간 37주년을 맞은 외대학보에게 많은 응답자들이 진심어린 축하와 함께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적었다. 정론직필이라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외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홀로 앞서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문제의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어 함께 나란히 가는 외대학보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대학신문만이 가질 수 있는 진보적인 성격을 잘 지켜내면서 동시에 독자의 여론수렴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외대학보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이자 우리 기자들의 지향이기도 하다. 외대학보는 오늘도 독자들에게 한발 다가가고 옳곧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자와 독자가 힘을 합쳐 신문을 만들어 갈 때 그 신문은 더욱 싱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외대학보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당부의 말이 무척 보람을 느끼도록 해준다. "마지막까지 외대인의 양심을 대변하고, 정(正)은 승리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꿋꿋이 역경을 헤쳐가기를…"

〈이충미 기자〉
〈그림 김호일〉

설문조사 결과

질문1.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상대적 비율 통계

전문성:14.45% 진보성:14.37% 객관성:30.14% 다양성:16.13% 신속성:19.64% 기타:5.27%

질문2.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현상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보도:3명(1.79%)

사건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도:74명(44.31%)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을 함께 보도:67명(40.12%)

기타:23명(13.77%)

질문3. 제도언론과 대비되는 대학언론의 성격 중 근본적이라 생각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상대적 비율

기사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진보성을 띤다:37.45%

독자층이 학내 구성원으로 지적수준이 예상가능하고 안정적이다:33.94%

물적인 토대가 광고에 의하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에 의하므로 상업성을 배제한다:28.61%

질문4. 타대학 신문들이 잇달아 제작중지 사태에 빠지고 전국적으로 대학언론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당신의 견해는?

언론 본연의 특성인 편집자율권의 침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99명(59.28%)

사건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도:74명(44.31%)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을 함께 보도:67명(40.12%)

기타:23명(13.77%)

질문3. 제도언론과 대비되는 대학언론의 성격 중 근본적이라 생각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상대적 비율

기사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진보성을 띤다:37.45%

독자층이 학내 구성원으로 지적수준이 예상가능하고 안정적이다:33.94%

물적인 토대가 광고에 의하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에 의하므로 상업성을 배제한다:28.61%

질문4. 타대학 신문들이 잇달아 제작중지 사태에 빠지고 전국적으로 대학언론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당신의 견해는?

언론 본연의 특성인 편집자율권의 침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99명(59.28%)

학생기자와 주간교수간의 권리주장이 지나쳐 빚은 사태이다:28명(1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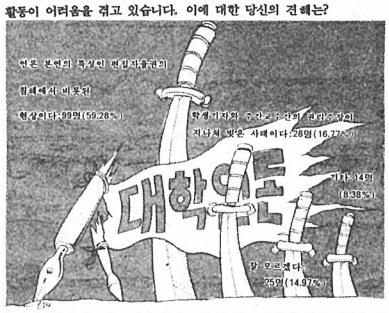
잘 모르겠다:25명(14.97%)

기타:14명(8.38%)

질문5. 창간 37주년을 맞은 외대학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관식이므로 게재 불가)

설문조사 대상·일시: 본교생 1백67명, 4월 12일(일)

타대학 신문들이 잇달아 제작중지 사태에 빠지고 전국적으로 대학언론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명수당(明水塘)

우리 대학의 현주소, 그리고 대학 내외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조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현실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시점 때문에,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고전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게되면 조금 현실성을 벗어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즉 고전적 역할과 기능이 현실과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연결을 불필요 혹은 해악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자체야말로 대학을 대학이도록 하고 그 존재의 정당성 및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논의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

산업사회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을 교육시키는 일은 대학이 가진 부차적 기능 중 하나이다. 순수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을 제외한 채 직업 교육내지는 응용 과학만을 교육하는 기관은 대학(university)이 아니고 기술교육기관(institute technology)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수요에 정직하게 응하는 데에 대학의 존재 이유를 두면 대학은 더이상 사회의 창조적 진보의 선구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기존 질서와 틀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부품 인간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대학에 대하여 연구와 교육의 가시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학은 현상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역사 속에서 평가하여 그 시대 정신을 추출하고 현실의 오도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또한 이런 종류의 일들은 대학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초미의 문제에 대하여 대학이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통제로 말아서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대의 분업 사회에서 큰 낭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바빠서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고 달려 나가는 차라리 뒤에서 천천히 그러나 끈질긴 노력으로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일들을 재검토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며 종합하는 기본적인 업무와 그 능력이야말로 대학인의 자랑이요 긍지라고 본다 일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적 순발력을 상실한 듯이 보이는 기초 학문이야말로 대학의 중심이며 그 존재의 본원인 것이다. 상아탑의 고고함은 학문의 배타성도 아니고 탈현실의 악취미도 아니다. 단지 역사적 전망 속에서 그리고 철저한 과학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시류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지적 노력의 결정들을 산출하려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 안팎에서 균형 관계에 의하여 행해져야지 기초 과학의 뒷받침 없이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 현대 과학의 성과를 향유하려는 것은 그 효과도 지극히 의심스럽다. 대학에서의 연구가 대학 외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연구비 지급 기관이 단기적 가시적 결과에 배달리게 되면 우리의 대학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원하는 성과를 만족스럽게 얻지도 못할 것이다.

대학 내에서도 우리는 집단주의가 만연되어 있음을 도처해서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학문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은 연구 성과가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였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역사속에서 평가하여 오도된 방향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

김 형 래
〈화학과 교수〉

대학을 휘감는 모든 비학구적 요소들에 반대한다. 현실에 대한 발언과 참여는 학문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의 항거를 통하여 표출되거나 학문적 연구결과를 사회에 알리고 호소 혹은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순탄하게 때로는 심한 마찰속에서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산업 사회의 직접적 수요에 스스로를 맞추는 일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지배 구조 내지는 모순적 체제에 맹종함으로서, 학문 속에서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대학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소위 첨단 학과의 증설과 집중 투자는 대학의 성향과 분별력에 의하여 학문간 상호 곽 권 주먹은 혁명적 제스처로서 대학 내에서 아카데미즘을 지키고 학문적 신념을 표출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 대학문화가 집단 을동과 선전 문화 형식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도 자유와 창조의 기운을 많이 잃을 수 밖에 없다.

대학이 제 모습을 찾아 역사를 성찰하고 현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과학적 기본 토대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 대학인, 그리고 대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학의 본질 문제를 재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대학 에선

건국대

처우개선 요구하며 조교 한때 파업

평소 과다한 업무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건국대학교 조교들이, 조교의 업무를 도았던 근로장학생을 축소한다는 학교방침과 관련하여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각단대 조교대표회의와 서명작업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던 조교들은 △근로장학생 제도의 원상복귀와 필요한 인원의 충원 △현행 조교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명시할 것 △그간의 등록금 인상에 상응한 조교임금의 현실적 개선의 3개안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지난 16일(월) 총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이렇다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26일(일) 행정업무와 학사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전면파업에 들어

'그간 우리 조교들은 등록금은 커녕 책값과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산적한 행정업무를 감당해 왔고,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술활동보다는 행정업무와 과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느라 학업시간까지 쪼개야 하는 행정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대자보를 통해 건대 조교처우의 실정을 알려 나갔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려 하지는 않고 조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인기응변으로 대처하려는 학교당국의 태도에 전면파업으로 경고한 조교들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월)부터 업무정상화에 들어 갔다.

건국대학교의 조교처우개선 요구행동은 본교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본교 조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서울 소재 타대학과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낮은 대우여서 본교에서도 조교복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서울캠퍼스, 1992학년도 신입생 인성검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서울 캠퍼스에 해당됨) 기간에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를 해석, 상담해 드립니다.

1. 내용: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의 여러 측면 즉 활동성, 지배성, 정서적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여러분의 대학생활 적응과 인격성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간:'92. 4. 27(월)—5. 29(금), 토요일 제외
3. 방법:개인별 해석및 상담
4. 장소: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학생회관 2층)

학 생 생 활 연 구 소

잠재력개발 훈련 참가희망자 모집

자신감을 갖고 싶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합니까?
왜 어떤 활동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노는 계획은 잘 지켜지는데 공부하는 계획은 잘 안지켜진다면?)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외대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5월 첫주부터 매주 2시간씩 5회
서울 캠퍼스—월요일 오후2:00—4:00
용인 캠퍼스—목요일 오후2:00—4:00
훈련장소:캠퍼스별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신청기간 및 장소:5월1일까지
서울 캠퍼스—학생생활연구소 신청실(961—4164)
용인 캠퍼스—학생생활연구소 신청실 ((0335) 30—4141

학 생 생 활 연 구 소

공 고

제목:B형 감염 예방 접종 실시

본 보건실에서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시:1차접종—4월15일(수)~17일(금) 3일간 (09:30~16:30)
2. 대상자:1차 접종자 및 추가접종자(매5년마다 1회 접종)
3. 1회 접종료:6천2백원(녹십자 헤파박스)
4. 지정의뢰기관:한국 건강관리협회
5. 실시장소:보건실

한국외국어대학교 보건실

제 6 기 전대협

백만학도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전대협 총노선 분석

지난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인하대에서는 제6기 전대협 총노선에 대한 토론과 의장선출이 진행되었다.

제6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총회가 지난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인하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모여 올해 전대협 총노선에 대한 토론과 함께 전대협의장선출이 진행되었다.

전대협은 올해 투쟁노선으로서 전국민적 자주·민주·통일투쟁과 민중중심의 민주대연합 구축으로 민주연합정부를 창출함과 함께 전총련 건설을 위한 토대구축 사업으로 학생회 자주화 사업이라는 조직노선을 결의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인하대 대강당에서 진행된 총노선 토론에서 용성총련의장 최만식(경희대 총학생회장)군은 투쟁노선에 관한 기조발제를 통해

투쟁노선 전국민적 투쟁과 민주대연합 구축으로 민주정부 창출

조직노선 전총련 건설 앞두고 각급 학생회의 자주화 요구돼

"이번 총선은 국민의 힘으로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해 민주변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대선에서는 민중투쟁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구성하여 범국민 공동투쟁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라며 민주대연합의 실현방도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발제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올해 전대협의 투쟁노선은 크게 정치적 목표와 조직적 목표로 나뉘어 진다. 정치적 목표는 반미자주화 투쟁 및 민주대개혁 요구 투쟁을 기반으로 한 민주연립 정부 수립 투쟁과 연방제 합의, 반미·비핵군축,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적 목표로는 지역별 민주대연합의 토대구축과 대중투쟁을 통한 전국연합의 강화, 범청학련의 건설로 범민족통일전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치·조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향성에 있어서 전대협은 단순히 '선포'식의 투쟁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일상투쟁을 통하여 학생회를 생활과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만드는 자주적 학생회를 구현하여 대중사업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요약하자면 올해 전대협의 투쟁노선은 일상조직 투쟁에 기반한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과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민민적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편 조직노선으로는 93년 전총련 건설을 목표로 각과, 단대 학생회의 자주화와 이를 통한 중앙 지도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 방침으로는 각급학생회, 지역·지구총련의 자주화 사업및 지도의 구체성과 총체성 담보, 간부혁신, 부문계열 조직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직노선의 궁극적 과제인 전총련 건설은 기간의 사업이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전행되었던 반면 학생들의 생활적 요구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전대협이 백만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을 뜻한다. 때문에 전총련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학생회와 지역지구총련의 토대 자주화 사업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각과, 단대학생회의 강화를 통해 지도의 내용을 풍부화하고 현재 각 학교간에 나타나는 불균등한 운동 역량을 중소 규모 대학의 강화로 극복하는 것이 전총련 건설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약화된 중앙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부혁신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전제속에서 간부들 개개인의 생활혁신으로부터 일반 학생대중들과의 결합력을 높여 자주적 학생회를 구현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이외에도 전총련을 건설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과제로는 부문운동 계열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부문운동계열의 활성화는 이후 전총련, 전학련을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직적 연대의 틀을 강화하는 것에 일차적 의의가 있다. 그것은 또한 각과, 단대, 동아리 등의 활발한 연대사업을 통해 현재 각 지역 대학간의 운동역량의 차이를 극복할 뿐 아니라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교류로 이후 애국적 사회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부문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 연대사업의 내용과 주체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조직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대협에서는 전총련 건설 연구소위를 구려 각 학생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사업을 벌여 전총련 건설을 위한 조직적 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숙 기자〉

제6기 전대협 의장 태재준(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91년 총노선과 92년 총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92년 총노선은 전총련 건설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실현 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립의 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91년에는 통일단결의 기풍을 확립하는 속에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핵심으로 바라보았다면 92년은 학우들의 삶의 고민들을 이렇게 쫓이잗 짓인 가에 이번 총노선수립의 촛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총노선의 핵심은 이러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고 또한 보다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총련 건설을 수립하는 방안과 민주정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하는 크게 이 두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대협 총회의 가장 큰 의의와 성과, 전체진행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를 내리면…

—충선투쟁과 학자투쟁을 거치고 난 우리들의 조금 흐트러진 모습들을 전대협 총회를 계기로 다시한번 가다듬는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올해 사업방향을 내오면서 전대협의 사업이 바로 '나의 사업'이라는 인식들을 공유하는 자리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토론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진지했고 전행과정에서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앞섰던 것 같다.

▲총노선 토론과정에서 제안된 총노선에 대한 이견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이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니카라과 혁명투쟁 당시 운동진영간에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보는 입장이 3가지로 분열되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난 89년은 운동진영의 노선분열이 첨예한 시기였으나 90년 이후에는 이러한 분열이 일정정도 극복이 되면서 단결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 운동방전의 소중한 성과로써 이후에는 말과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극복해 나가야한다.

또한 그러한 이견들은 이후 민주적인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들어 운동권이 퇴조한다라는 주위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견해를 펴는 사람들은 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괴리를 가장 큰 증거로 꼽는다. 어느정도 타당한 면도 있으나 그것은 현상의 일부분을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학우들이 학생회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받아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설혹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패배적 관점으로 사고해서는 안된다. 학우들과의 괴리가 생겼다면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간부들의 혁신과 기층 단위의 자주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올해 전대협은 이러한 기층토대 강화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받아안고 이후 건설될 전총련 건준위에서 구체적인 연구, 조사사업을 통해 자주적 학생회의 구현을 실현할 것이다. 〈사회부〉

가쓰의 눈

투표는 공개, 재판은 밀실

"선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그래서 더욱 부정선거는 용납될 수 없어요."

지난 9일(금) 본교 이문동 캠퍼스 교문앞에서는 통일국민당 소속 선거운동원 대여섯명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무작정 오리발 내민다고 이대로 덮어둘 순 없잖아요. 국방부와 현정권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만 돼요." 서명을 받던 한 주부의 말처럼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일어난 부정은 그 진의를 파헤쳐야하고 그에따른 심판도 받아야 한다.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으로 그동안 쉬쉬되던 군내에서의 부정선거, 안기부요원에 의해 자행된 혹색선전 등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선거의 뜻을 개인이나 특정단체도 아닌 정부에서 이겼다는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의 폭로 이후에 보여진 현정권의 모습은 반성은 커녕 덮어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야당측의 요구를 당내사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무마시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국민의 뜻이 허와 실을 가리자는 데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난 1일(수)에 열렸던 이지문중위 구속적부심에서 장석화변호사가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갔고 이중위 가족들의 출입도 막는 등 최대한(?)의 밀실재판을 행하려하고, 안기부 직원 혹색 선전물 살포사건에 대한 구속만기일(15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신도 아닌 이상 해결 못할 사건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안기부사건의 해결에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분명 부정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사건들이 TV뉴스에서, 일간지에서 점차 뒤로 밀려난다해서 호지부지 무마시켜버려서는 안된다. 선거는 계속된다. 이번 사건들은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거부정은 남한에서 독재정권이 태동할 때 부터 자행되어 왔다. 현정권이 원하는 대로 덮어둔다면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는 부정선거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하며, 이후에 또다시 부정선거가 되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박준모 기자〉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엄격한 학사관리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석사출신 미국인 강사진담당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 1·3, 토 1·4때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2가 파고다공원건너편 274-4000
강남 삼구빌딩 동호대교밑 515-4020

프랑스語
5~6月학기 수강등록접수중
●개강 : '92. 5. 4.(月)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 mauger Ⅰ,Ⅱ,sans fron. Ⅰ,Ⅱ,Ⅲ
• archipel Ⅰ,Ⅱ,Ⅲ,bonne route Ⅰ
• avec plaisir,france act.VIDEO
• traduction,theme,
• conversation libre, 시사에디아만
sé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eoul ☎ 555-1125, 1126(강남)
PUSAN 622-3601 KWANGJU 364-0189
TAEGU 255-4630 DAE 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韓佛文化院

SINCE 1961
개원 31 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종각옆 TEL :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기대미TOEFL 미국아HEARING 영어문법·독해
로 영TOEFL 성문종합영어 (초·중·고급)
이 재 욱TOEFL 실용기본영어 영 어 회 화
TOEFL GRAMMAR TIME·일작문 일본어회화
VOCAB 22000 영 어 회 화 러시아어
영 어 순 해 (초·중·고급) 독 일 어
TOEFL L·C 미국인회화 (초·중·고급)
TOEIC L·C GRE 2000 GMAT 700
TOEFL 600 M·A English 통역대학원 입 시 반
(대학원 진학 준비반)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동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3기 수강생모집
●개 강 : 1992. 5.4. 8주)
●강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제단법인 연이교육 부설 연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Vacation을 위한 준비
대우전자 제품
전자동 루키 CAMERA(AFC-90)를 시중가의 62%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218,000(시중가) ×0.62 =135,160(판매가)
*기능 1. 자동 필름장전
2. 자동 필름감기/되감기
3. DX 필름감도 자동설정
4. 자동 초점 조절
5. 포커스 락
6. 자동 및 매뉴얼 플래쉬
7. 기타
대우카메라 AFC-90
한정판매
*남·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실 분 약간 명 모십니다.
*판매처 태영커뮤션 TEL.(02)233-2891~3

보되기획

학내 자주권력 수립위한 민주적 학사행정

글 싣는 차례

1. 89년부터 91년까지 등투평가
2. 교재투의의와 92년 교재투 정책논의
3. 올바른 학생요구안 작성을 위하여
4. 학원자주화 투쟁과 자치권력 투쟁
5. 올바른 교권과 학생권의 자리매김
6. 교수·학생협의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 모색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 인간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공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특수한 공익사회이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 주체는 명확하게 교수와 학생이다. 따라서 대학의 실질적 주체는 연구와 가르칠 권리·의무를 포함한 교수권을 지닌 교수와 배우고 연구할 권리·의무인 학생권을 지닌 학생이며 부수적으로 직원 및 행정당국 등도 대학을 구성하는 주체임은 명확하다.

이렇게 주체가 설정된 가운데 대학을 자주적으로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구성하는 이들 각 주체들이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의 역할을 지켜내려는 노력과 함께 대학의 일방적, 비민주적 운영의 형태를 개선하고, 이들 각 주체들이 대학운영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

또한 주인의식의 자각을 바탕으로 진정 대학운영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자치권력의 확보와 이 자치권력이 대학발전을 위해 전일적으로 응집, 결합될 수 있는 기구·제도가 필요하다. 즉 각 구성원들의 자기권력 및 자치의 확보와 함께 이들 각 주체들의 의사가 올바르게 수렴되고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 통로와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된 의사를 올바르게 하나의 정책안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수립과 결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무 집행체계도 중요하다.

학과의 교수·학생운영위원회

이제까지의 대학운영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단위인 학과에서 부터도 교수와 학생이 명확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학과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 보다는 교수의 일방적 교육과 학과운영으로 학생들은 상호신뢰보다는 불신감만이 팽배하게됐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과 발전을 위해 교수,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수·학생 운영위원회'(이하 교학운영위)가 구성돼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간담회나 규정력이 약한 협의회 수준에서 벗어나 학교내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공식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교학운영위의 건설을 통해 교수, 학생들은 학과의 민주적,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학사행정의 원활한 처리와 교수들의 학생교육 및 연구여건의 마련,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여건 및 학습분위기 조성, 학습내용의 수준높은 질적 개선, 사회진출을 위한 대책 등 학과운영 전반에 걸친 것들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부산대 교육학과의 경우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칙을 통해 '학과내 모든 문제를 학과의 주인인 교수, 학생이 함께 협의함으로써 학과민주발전을 도모한다'(회칙 제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각 학과마다 학생대표회의, 교수대표회의등 양자의 소위원회가 모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과행정에 대한 입안, 결정내용 심의 △교수채용시 학과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학생들로 부터 수렴하며 심의 △교수자질이 문제화 됐을시 이의 해결을 위한 협의 △재정의 계획 및 지출에 관한 심의 △교과과정 심의 기경 △대학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단과대학 발전 위원회

기본적으로 단과대학은 상당한 양의 행정적, 교육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학과의 협의수준과는 다른 질적인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각 단과대학 학생 및 교수는 동적으로 단과대학 행정체계에 결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여기서 결정되는 사안은 대학 전체 행정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고의 권위와 집행력으로 그 내용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단대발전위원회'(이하 단발위)는 독자적위상도 없이 중앙기구나 학과의 움직임에 따라 표류하는 모습을 보일 수 도 있다.

따라서 단발위가 건지해야 할 최고의 위상은 교학운영위의 위상을 숭계하면서 대학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과대학내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상을 갖게되는 단발위의 기능으로는 크게 △단대 학장선거에 질의권·참여권부여 △단대 학사일정의 공동조정 △단대 공통교양 및 계열교양의 조정(학점체계의 조정) △단대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학과별 분쟁조정, 교학운위 규정 △단대 복지 및 취업대책 장구 △단대 행정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소환, 질의권등이 주어지게 된다.

대학발전위원회의 건립

대학발전위원회(이하 대발위)는 학내 각 구성원들의 최고 책임 당사자들이 학내행정 및 제반 문제를 협의, 심의, 의결하는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현재의 대학들은 87, 88년 학원자주화투쟁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최고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단순히 협의차원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상으로는 최고의 정책 및 집행력을 구사할 수 있는 의결위원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동아대의 경우 89년 2월17일 '삼자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발족취지문을 통해 '민족민주교육이념의 실현과 이를 위한 필수요건인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고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수, 학생, 행정당국 등 삼자로 구성되는 삼자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삼자협의회는 교과과정, 학칙, 장학, 기성회재정, 학사일정 및 대학의 장기발전에 대해 폭넓은 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위에 있어서는 '협의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어 학생요구안이 관철되기에는 상당한 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학운영위, 단발위, 삼자위원회 등 모든 학내 민주기구의 건설은 학생들의 학원자주화 사업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층학생들의 학원자주화로의 재무장은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역량이 갖추어지는 학과, 단대로 부터 발전적인 개선을 이뤄나아가야 한다.

이의 수행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지 상층의 학자의식만이 고양되었다고 하여 전체 학생들이 모두 같은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경희대, 건국대가 '대학발전위원회'를 건립하고도 기층단위의 교양부족과 역량의 위축으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버린 것에서 드러난 오류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는 '민주적인 총장선출'부분이 있다. 조선대가 전국대학 중 모범적으로 민주총장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학사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국 민주총장이 퇴임함으로써 다시 이전상태로 복귀해가는 모습은 이 문제를 단순히 협의, 심의체의 구성 이후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대학부〉

학내제기구 민주화 위해 학과부터 시행
기층 학자의식 고양 통해 원동력 확보해야

빼앗긴 학원에 봄은…

○…외대발전의 고지를 향한 질주속에서 때아닌 잡음이 일어 흡산들 주먹 불끈.

지난 9일(목) 이문, 왕산 흡산들이 공동집회대회를 가진 후 제단사무실로 몰려가 재단집기를 들어내며 강경항의를 하자 집에질린 일부 보직교수들께서 주모자인 이문부총학생회장과 서앙어대학생회장을 징계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다고.

산신령이 그네들을 지핀것도 아닐테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부터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인지하시길.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12년동안 품어온 한스러움이 오죽했으면.

법정에선 두남녀,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차치하고라도 12년동안의 성폭행에 관한 언급은 전혀하지 않은채 오로지 결과만 살인죄만이 적용됐다고.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남성우월주의 척결을 위해서라도 재판관 나리는 보다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사와요.

○…평화통일을 외치며 뒤돌아서면 싹쓸이를 일삼는 신종 조직파괴범이 나타나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는데.

'뼈'하면 조직사건을 터뜨려 민초의 불안심리를 조장,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무작위 적용하는 집권 행정부가 바로 주인공.

민주정부수립의 그날,그때를 최명은 선량조직 가증파괴로 넘어빠진 국보법과 함께 '고려장'될 것이 뻔한일.

○…최근 흡산을 대하는 조교님들의 얼굴빛이 굳어져 있어 분위기 만악하기 이럽다고.

알고본즉 대학당국은 조교에게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쥐꼬리만한 급여에 급기야 학교교직원 버스 승차까지 불허하는 등 타 대학에 비해 형편없는 처우로 조교의 얼굴에 그늘을 심은 것.

대학의 주인을 주인 대접해 주지 않는 오늘의 웃지못할 대학. 그러다간 포위, 고립되고 만드시 심멸될 것이 자명할 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최모 노동부장관의 총액잠꼬대가 이번 '92임금협상에서 한반도에 평지풍파를 몰고 올듯.

일부 기업체의 경우 노조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 그리고 일부 간부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이 기회에 조합에 가입하려는 회사 간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다소 위축되어진 노동운동 뇌관이 최장관 등의 두들김으로 금명 대단한 힘으로 불붙을 것 임을 그대들은 명심해야 할 터.

총액잠꼬대

■학자를 위한 소기구 점검 〈교통〉

교통 대책 위원회

특화기구 설치로 고질문제 해결해야

등록금 협상과 관련하여 용인캠퍼스 학생요구안으로 제기돼 왔던 '교통문제 개선안'이 지난 3일(금) 이강혁 총장과 총학생회장 신건수(서학·체코4)군과의 면담과정에서 7개 개선안에 대해 대학당국의 긍정적인 답변과 이후 개선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비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용인캠퍼스 교통관련 학생요구안 관철부분을 살펴보면 △동서울 노선차량 15대 이외에 신노선 버스 10대 이상을 연중 운행 △학내-모현간 버스요금을 1백50원으로 인하 △대학당국은 소형버스(24인승) 2대를 구입하여 학내-모현간을 운행하는 방안 검토 △113번 좌석버스(현재 동서울-하남시-광주 운행)를 학내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 적극 모색 △100-1번 버스노선의 운행차량을 이전과 같이 회복 △사당, 양재 방면의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학생측과의 협의 △동서울 노선의 배차시간 재조정 등이다.

이번 협의사항은 그동안 '교통소위원회'를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측 '교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1개월여의 협상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을 양측이 합의하고 이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3월 초에는 △학교직영버스 20대 구입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노선연장 등 주로 차량의 확충과 노선연장에 주력해 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 백청수(자연·물리4)군은 "당시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차량의 확충, 노선연장을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목표로 설정했었다"라며 하지만 이는 현시기에 있어서 선결 개선책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신노선 확보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동서울 신노선 확보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신노선의 확보는 기존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던 차량수와 노선연장에서 벗어나 한층 더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는 것이 이미 대학당국과의 협의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문제 해결은 학생·교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측과 대학당국의 합의만으로 교통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차량의 차량배차와 운행수에 대한 입자·대학당국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대학당국이 합의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잡히지 않다는 것에서 불 수 있다. 이전까지 대학당국은 개선의 의지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93년 분당지하철 공사의 완공이후로 계획안을 미루는가 하면, 현재 경인지역의 18개 운수회사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산하는 등 수익성 부분을 강조하며 학생측 개선안에 난색을 표명해 왔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합의사항 중 앞으로의 교통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합의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시적으로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시 돼 왔던 등·하교시의 소요시간을 줄이게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용인캠퍼스의 발전과 대학촌의 건립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장기적 계획안 마련 위해
학생·교수 협의체 강화 모색

이러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학생측 대책위원회의 움직임이 시기 적절하게 맞아 들었으며, 개선안의 수립에 있어서도 일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알맞게 수용함으로써 현실적인 개선안 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8년 11월3일 대학당국이 '교통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수회사측에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학생측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의 틀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의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생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대책위원회는 용인캠퍼스의 신노선차량의 확보도 같은 지역을 운행하는 다른 운수회사의 압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 외에도 대책위원회의 상설화와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기구로서의 위상정립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대책위원회는 91년 까지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오던 교통문제를 올해 들어서면서 급조된 형태로 조직됨에 따라 아직까지 조직으로서의 정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백청수군은 "왕산발전위원회라는 장기적인 용인캠퍼스 발전안이 제기되면서 지금의 대책위원회도 복화된 부서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당국측 관련부서도 비슷한 위상을 갖고 학생측 대책위원회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당국측 교통관련 논의기구도 현재 심의체 기구로 마련돼 있기 보다는 대학당국과 제단을 의식한 유동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은 이미 수차례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적으로 교수·학생이 교통문제를 공동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 속에서 장기적인 캠퍼스 발전계획에 맞는 거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측은 이번 합의가 임시 방편적으로 단행된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실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영환 기자〉

비둘기칠판

이문벌

■신입회원 모집해요

저희는 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세미나하는 외대의 유일무이한 동아리입니다.

아름다움을 알고싶은 92학번 새내기는 지금 당장 학생회관 4층 민중미학연구회로 달려오시와요.

〈민중미학연구회〉

■우리도 신입회원 모집해요

문학에 관심있는 92학번 새내기는 학생회관 4층 외대문학회로 어서 뛰어오셔요. 선배들이 맛있는거 이따만큼 사준대요.

〈외대 문학회〉

■우리라고 신입회원 모집안할줄 알았죠?

미식축구에 관심있는 분은 4월15일(수)까지 대학원 로비로 오시면 아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거예요.

■지갑 찾아가세요

〈미식축구반〉

지난 10일 식당건물에서 흑녹색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 외대학보사로 찾아오세요.

〈고운 비둘기〉

왕산골

■ 맑은 봄하늘 아래에서 맘껏 뛰놉시다.

독일어과 학우들끼리 체육대회하면서 단결을 다짐시다.

때:4월14일(화) 5시30분

곳:운동장

〈전진독일어과〉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8일(수) 교양학관앞에서 동부승리를 위한 집회때 까맣고 조그만 전화번호수첩을 떨어뜨리신 백은미양 외대학보기자실에 보관하고 있으니 찾으러 오세요.

〈정직한 비둘기〉

비둘기칠판은 여러분의 광고란입니다.

알리고 싶은 말, 친구의 생일축하, 분실물신고등 어떤 소식이라도 정성껏 실어드립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 (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 (학생회관 212호)

동문회

(이문)

여수향우회

때:4월16일(수) 늦은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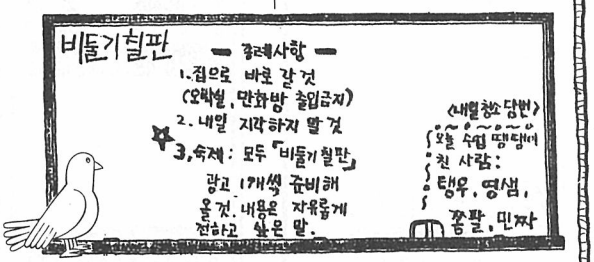
곳:정릉

제물포, 안일

때:4월17일(금) 늦은 5시

곳:상징탑

안건:동문 체육대회



양캠공동 집회 열어 외대발전 촉구

서울, 총파업 실시로 등투승리 결의

재단집기 방출등 재단에 강경항의

지난 4월9일(목)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는 이문·왕산공동결의대회가 열렸다.

'재단전입금확보를 위한 제3차 비상학생총회'(이하 비상학생총회)가 지난 9일(목) 서울·용인캠퍼스학생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비상학생총회는 예전과는 달리 지난 7일(화) '동맹휴업'을 결의한 용인캠퍼스 학생 4백여명이 교직원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캠퍼스에 도착, 집회를 준비중이던 서울캠퍼스 학생들과 결합하여 공동집회 형식으로 열렸다.

첫 순서로 전행된 용인캠퍼스 동맹휴업 보고에 대해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병철(사회·무역4)군은 "재단전입금 확보를 통한 교육재정확충투쟁의 가속화를 위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결의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6%의 찬성으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학생총회가 끝나고 곧이어 시작된 '재단전입금 확충을 위한 공동결의대회'에서 연사로 나온 동양어대 학생회장 하진영(아람어·4)군은 등록금투쟁과 재단전입금 확충의 방향과 관련해 "이제까지의 막연한 당위·추상적 사업에서 벗어나 근거가 명료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 승산있는 싸움을 전개해 나가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집회를 끝낸 학생들은 교육재정확보,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사행정참여보장을 요구하며 본관2층 법인 사무실에 몰려가 집기를 들어내는 등 강경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후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학생들의 학사행정 참여'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제까지 용인캠퍼스는 학자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무를 통해 학생들은 학사행정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앞으로 등무를 위해 조직됐던 모든 역량을 학자조직으로 전환하여 이후 학자무를 계속해 나아갈 것 입니다"

지난 8일(수)부터 단행된 용인캠퍼스 동맹휴업과 관련하여 이의 수행을 위해 조직된 '동맹휴업 대책위원회'의 정책부분을 담당하였던 손영준(동학·아람4)군의 말이다.

동맹휴업은 학생들이 대학당국을 상대로 학생요구안을 관철 시키기 위한 가장 커다란 형태의 실력행사 방안이다. 이는 결국 그동안 지난하게 전행돼 온 등록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의사표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손군은 "이미 전체적인 행동이전에 5개 학과에서 이번 방안을 제기해 왔고, 이는 상층부의 정책안이 하부전달식으로 전행되어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학과가 독자적으로 학자의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나온 방안이다"라며 고무적인 발전상임을 밝히고 있다.

손군의 말처럼 이번 등무를 통해 학생들은 학원내에서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폭넓게 교양하게 됐다. 이와함께 대학당국으로 부터 학생요구안에 대해 보다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개선의지를 보이도록 촉구하는데는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재정' 부분이 타결되지 않은 관계로 등무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군은 "교육재정 중 재단전입금의 확보를 촉구해 왔으나 이제는 한차원 높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조금의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후 투쟁방향을 말한다.

"교육재정확보투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확충을 요구할때입니다"

〈용인캠퍼스 동맹휴업 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손영준군을 만나〉

이사람

한편 또다른 투쟁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서도 손군은 "동맹휴업기간 중 학생들의 등교숫자가 저조했던 것과 학생간 부들의 전일적인 의견통일이 부족했음은 시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찾게된 등무를 통해 이제 용인캠퍼스는 이를 내부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 이와 더불어 손군은 "이제는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할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다시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등무가 단순히 대학당국과의 투쟁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커다란 투쟁의 시작임을 다시한번 강하게 시사했다.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좁은 공간 속에서 단순히 가시적인 복지사안만을 개선하려는 대학당국의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학당국의 '학교발전 장·단기 계획'에 있어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 학자정책을 맡고 있는 학생복지위원장 조용원(정과·신방4)군은 지금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용인캠퍼스는 '동맹휴업'이라는 단체행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사행정참여를 보장받고 일차적으로 대학당국과의 협상을 끝낸 상태이다. 이에 반해 서울캠퍼스는 그동안 제기해 왔던 재단전입금의 확충에서 가일층 발전하여 캠퍼스 이전을 통한 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캠퍼스는 재단전입금의 확충이 곧 외대발전이라는 도식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에 있어서는 캠퍼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것이 올해의 학자사업에 있어서 쟁점사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 수 없는 공간에 '새옷만을 입히는 것'일 뿐 이다. 이에 대해 조군은 "대학당국이 올해 등록금협상에서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의 용인캠퍼스 통합 부분만을 고려한 서울캠퍼스 발전 계획의 배제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라며 "이러한 방안의 본질을 살펴보면 재단이 더 이상의 자금유출 없이 양캠퍼스를 통합함으로써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하려는 구도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본교를 지방대학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밝힌다.

"진정한 외대발전을 위해서는서울내 새로운 공간으로 캠퍼스 이전이 필요합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원군을 만나〉

사실상 본교 재단은 세곡·자곡동에 학교부지로써 손색이 없는 토지를 지니고 있어, 이곳을 개발할 경우 중흥의대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손색없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단측은 보유토지의 공개마저도 꺼려하고 있어 법인 설립목적을 의심케 하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양캠퍼스가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캠퍼스별로 인문계열의 통합과 종합대학으로서의 자연계열·이공계열의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조군의 말처럼 양캠퍼스의 공동발전은 용인캠퍼스로의 통합이 아닌 독자적인 발전을 통한 현재의 모든 가능요소를 타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부〉

본교생 하루 빈활실시

본교 서울캠퍼스 '빈민활동준비모임'(이하 빈활)에서는 경희대·서울여대 빈민활동모임만과 함께 지난 11일(토) 청량리 경동시장일대에서 노점상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빈활은 매달 초순에 하루를 채택하여 실시, 도시빈민과 학생간의 지속적인 연대를 목표로 하고있다.

서울, 각 단대 해오름식 열려

92년 1학기 사업기조 설정과 집행부 인준

이번 4월 초순까지 서울캠퍼스 6개 단과대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이 대부분 치뤄짐에 따라 각 단과대 학생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8일(수) 노천극장에서 해오름식을 진행한 동양어대는 하진영 동양어대학생회장의 인선을 통해 선임된 8개 집행부의 각 부서장들이 인준됐으며, 이와함께 학생회내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올 1학기 사업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정책과학대도 대학원 소강당(6104)에서 해오름식을 열고 '모든 사업에 단결의 기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했다.

10일(금)에는 사범대와 법대가 본교 대강당과 대학원 소강당에서 각각 '정기학생총회및 해오름식'을 가졌다.

사범대 해오름식에서 사범대 학생회장 김지연(한교·4)양은 이번 학생회의 기조에 대해 "다시 태어나는 학생회, 발로 뛰는 학생회, 책임지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 진행된 학장 인사말에서 이상준(영어과)교수는 사범대 학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해 학생들로 부터 갈채를 받았다.

법대학생회도 총회와 해오름식을 통해 학회연합의 결성, 분임토의의 활성화, 법대발전위원회의 건설등을 이번 1학기 사업기조와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서양어대는 오늘 (14일) 오후3시 노천극장에서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을 진행하며, 상경대와 총학생회 정기학생총회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7일 동총련 출범식 열려

총노선 및 의장단 인준

'제5기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동총련) 출범식'이 지난 7일(화) 서울산업대에서 개최됐다.

본교를 비롯 한양대·건국대 등 동부지구3개 학교가 참가한 이번 동총련 출범식은 6일(월)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의장단 인선식을 거행하고 정식으로 동총련을 발족했다.

이자리에서 동총련 의장으로 인선된 김정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출범선언문 낭독순서에서 "7만학도의 의지를 모아 자주통일, 민주정부수립의 길을 개척하자"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과 용인·성남지역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은 각각 서울대학교와 신구전문대에서 오는 15일(수) 열린다.

본교생 이남수군 I·S관련 추가 구속

지난 8일(수) 방위병으로 복무중이던 본교생 이남수(서양·불어4 휴학)군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조직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이번 이군의 연행은 재학당시 IS 편집부원을 역임했다는 것이 혐의사실로 인정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이 확정됐다.

본교 94년 입시요강 발표

본고사 세과목으로 제한

94년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본교도 지난 9일(목) '대학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학입시선발유형은 내신성적40%,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20%, 대학별 고사성적40%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사범대학의 경우 대학별고사(본고사) 비율을 30%로 낮추어 면접고사(5%)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5%)는 따로 실시할 예정이다.

게열별 고사과목을 보면 먼저, 인문계는 국어·영어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과목에서 한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자연계는 국어·수학Ⅱ과목을 필수로 하여 물리·화학·생물중 한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본교 대학입시요강은 본교와 비슷한 수준인 한양대·이화여대등 서울지역 중·상위대학의 입시요강과 유사하며 영역별가중치와 특별전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용성총련, 군선거부정 규탄

서울서도 국방부 항의 방문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총련)은 지난 11일(토) 성균관대 학생회관에서 서총련 소속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 부정투표 규탄 및 이지문 중위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집회후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1백50여명의 학생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되었으며, 이날 오후 늦게 풀려났다.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도 같은 날 경원대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군 부재자부정투표 규탄 및 이지문 중위 석방을 위한 용성총련 4만학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집회후 가두시위 및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 선전과 집권당 규탄 시위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약식집회만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서 용성총련 의장 최만식(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군은 "3월 총선을 통해 집권당을 심판했으나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는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 집권당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집권당의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후 투쟁을 벌여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직원동정

◎이장희(법학과)교수, 24일 '남북합의서의 법제도적 실천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본교 이장희(법학과)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아시아 사회과학 연구원'은 오는 24일(금)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독일 아데나워 재단, 동아일보 후원으로 '남북합의서의 법제도적 실천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학과움직임

◎용인 독일어과, 14일 '연합체육대회'개최

용인캠퍼스 독일어과는 오늘(14일)전체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연합체육대회'를 갖는다.

◎서울 이란어과, 16일 '퀴즈경연대회' 개최예정

서울캠퍼스 이란어과는 오는 16일(목) 4·19를 맞아 일반상식 및 학과에 대한 '퀴즈/ 페르시아'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과 모임을 갖는다.

동아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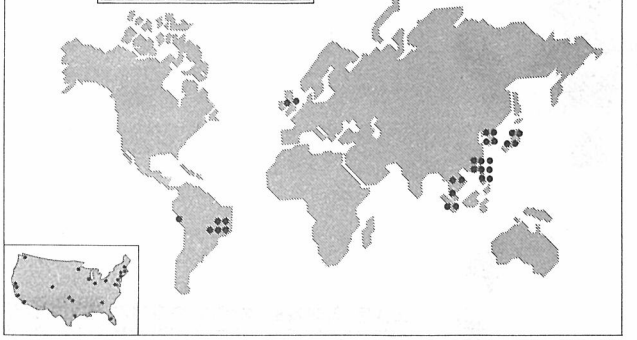
◎용인 적십자 봉사반, 18일 '한사랑 마을'방문 예정

용인캠퍼스 적십자 봉사반(RCY)은 18일(토) 경기도 광주군 소재 중추장애자 아동수용소 '한사랑 마을'을 위문한다.

◎용인 춤동이 사랑회, 16일 성남탁아소 초청 아동 나들이 가질 예정

용인캠퍼스 춤동이 사랑회는 16일(목) 성남탁아소 협의회 소속 4개 탁아소 아동 70여명을 초청, 봄나들이를 갖는다.

ENGLISH
Your Passport to the Future!



ELS LOCATIONS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을 주축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수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직영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분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강남 565-0509 ELS종로 278-0509 ELS서초 585-0509

● 21 USA LOCATIONS
• ATLANTA • BOSTON • CHICAGO • CLEVELAND • DENVER • INDIANAPOLIS
• NEW YORK CITY(2) • NORMAN • OAKLAND • OKLAHOMA CITY • PHILADELPHIA • ST. PAUL/MINNEAPOLIS
• ST. PETERSBURG • SAN DIEGO • SAN FRANCISCO • SANTA MONICA • SEATTLE • WASHINGTON, D.C.

● 29 INTERNATIONAL LOCATIONS
• SEOUL(3) • PUSAN • OSAKA • TAICHUNG • BANGKOK(2)
• KUALA LUMPUR • KOBE(2) • TAIPEI(6) • JAKARTA • LIMA
• SAO PAULO(5) • TOKYO • KAOHSIUNG • LONDON(2) • BANDUNG

새록새록 솟아나는 만화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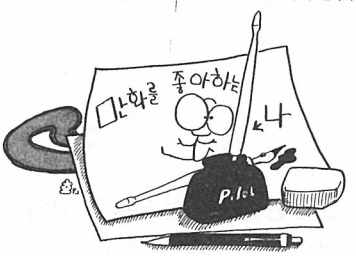
—문예아카데미 「만화창작교실」을 다녀와서

"우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키득키득, 푸후푸후, 까르륵까르륵" 서로서로가 금방 친해져서 서스럼없이 웃고 떠든다. 이 소리는 바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산하 민족미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문예아카데미 "만화창작교실"에서 나오는 웃음 소리이다.

"저는 지금 중학교 미술 선생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릴적부터 오로지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끝내 미련을 못버리고…" "저는 예가 들이나 있는 유부녀고요. 생산직 여성 노동자로서 이번에 저희 노조에 만화패를 새로 만드려고 찾아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 보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직까지도 만화라면 짤깃지 않게 여기는 엉터리 도학자같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특히나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일본만화들! 솔직히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그리고 재밌습디다. 근데 나쁜 것이 잘 나고 잘빠졌으면 그것이 더 위험하고 해로운 것 아닙니까? 방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짱통로보트를 새롭게 개발해 고추가루의 매운맛을 특특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바탕 웃음이 넘친다. 왜들 그렇게 자주 웃고 잘들 웃는지, 다음 강의를 들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이러궁질해 할 것이다. 그러나 뒷풀이까지 이어지는 빡찍찌근한 박장대소의 그 시원시원함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다 큰(?) 아저씨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발표된 입속하고 남카로운 만화나 글 덕분에 남다른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고계신 분들이 애기(?)들 앞에서 신나게 자신의 이럴 적 만화얘기를 한다. 손을 쭈욱 뻗으며 아앗! 소리까지, 눈빛도 반짝반짝! 그러다 갑자기 숙연해지며 주인공이 죽었다고 침을한 목소리를 떨구신다.

어이쿠 이러다간 한도 끝도 없겠다. 흔히 만화광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말 다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미친놈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만화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만화에 대해서는 할 말, 해야될 말들이 그렇게 많은가보다.



이상으로 '만화창작교실'의 진풍경들을 그려보았다. 지난해에는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 주관으로 '민족만화 배울마당'이 총 10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져 열렸고, 이번에는 전체 민족 예술의 각 분야가 망라되는 (총 8개 강좌, 16주 강의) 거대한 아카데미의 한 부문으로서 만화창작의 교실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 본격적인 민족만화강좌는 앞서 말한대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일 뿐이다. 다른 민족예술분야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대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강생들의 목은 바짝 바짝 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의 만화는 분명 메말라 있다. 상호에 찌든 비열한 출판업자와 무책임한 작가, 아무 생각 없는듯한 독자들, 그리고 냉담하기 그지없는 못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덕분에 말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 만화의 역사는 고희를 훨씬 넘었다고, 나름대로 근사하게 은근슬쩍 말해지기도 하지만, 진정 고희(고래로 희귀하고 가치있는 역사)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여지기에는 부끄럽이 앞선다. 그것은 성숙함, 환결성에 대한 뿔은 인간 생에 있어서의 년배이지, 오로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붙여 질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만화는 안타깝게도 덜 길러진, 왜곡된 질풀밭이의 구부정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한 질풀밭이가 제대로 일어서서 뛰어가려고, 훨훨 날아가려 하고 있다. 바로 이번 창작교실을 통해서 말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실제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변혁적 차원의 구체적 실천들이 민족만화 발전에 가장 시급한 바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족만화의 새로운 생산·보급인력의 확충 또한 우선 되어진다 하겠다. 그에따라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양적확산만을 위한 저열한 통속성이 아닌 본래적 의미로서의 진정한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실질적인 생산·보급인력들을 확보·세력화 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창작교실의 가장 우선된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들은 수강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증명하듯 생산자의 입장에서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인 실기프로그램(만화영화·감상회 포함)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바램과 열망에 부응하여 규정된 강의와는 별도로 따로이 보완되어지면서 동시에 이미 개획된 알찬 강의 속에서 충분히 무르익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네번에 걸친 학습이 그러한 바를 입증하는 듯 했으며 더욱이 각각의 부문별로, 즉 만화이론과 비평, 콘티, 극화, 시사만화 등 특화된 소조별 모임이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러면서 다소 일방통행적인 단선적 강의형식에 의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던 입장들을 강의준비 및 개인훈련, 선배들과의 연대등을 더욱 곤고히 하기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자체 전환시켜 나갔다. 더 나아가 전체 민족만화 발전의 앞날을 밝게 비춰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먼저않아 우리의 만화가 올바른 대중문화발전의 선두주자로 나설 것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채 덕 신
〈동양·태국어4〉

수 필

이제 나도 정신차렸다구!

군대 화장실에 누군가가 써놓았던 글귀가 생각난다.

'쪼그려 앉는 것은 좌변기에 앉는 것보다 몇배나 힘들어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 군대의 화장실도 내 머리를 굳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이 글이 왜 학교에 복학한 지금 떠오르는 것일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굳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머리탓도 있을게다.

복학후 머리의 한계를 제일 처음 느낀 일은, 낯설게 느껴지는 수강신청을 한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수업시간에 맞춰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확인한 강의실 호수가 6518이었다. 그래서 대학원 5층까지 단숨에 올라가 18호실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518호실엔 '교수연구실'이란 딱지가 붙어있을 뿐이었다. 요즘은 교수연구실에서도 수업을 하는겐지, 외구심반 호기심반으로 창틀에 매달려 넘겨다 보니 도저히 수업공간이라고 할만한 분위기는 조금도 느껴지질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너털너털 내려오는 데, 후배가 반갑게 인사를 한다.

후배가 보여준 강의시간표를 보니 6518은 '교과목 코드번호'였다.

또 한번은 과모꼬지 때였다. 과모꼬지를 가기로 하고 '시계탑'에서 12시에 만난다는 약속이 기억나 정각에 학교로 등교했다. 시계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질 않았다. 약속장소를 잘못 알았나 해서 상징탑으로 분수대로 과방으로 헤매다 다시 시계탑에 가봤는데, 역시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모꼬지를 포기하고 그날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셔 버렸다. 과 사람들이 모꼬지갔다 돌아온 다음날 물어보니, 시계탑은 시계탑이었는데 청량리역 시계탑이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종다양한 실수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귀결점을 단지 내 머리탓으로 돌리기엔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문제는 단순한 머리탓보다 군대라는 공백에서 오는 역반응이리라.

학점뺑구 내가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던 동기들이, 복학한 후 이방인마냥 과로 동아리로 떠돌다가 모두 공기도 안좋고 조명도 안좋은 도서관에 하나둘씩 정착해 버린다. 마땅히 자신이 참여할 공간을 찾지못해, 1·2학년때의 '우리 동기'라는 개념은 '나' 하나로 축소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나 역시 언제부턴가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후배들과 그리 친하지도 않았고, 퓌니퓌니해도 예비역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건 같은 동기들이었던 이유 하나로.

복학한 첫주엔 술 한잔도 마시지 않았다. 서로서로 견제하며, 물론 다른 동기들이 나에게 술마시러 가자면 두말않고 함께 할 태세는 갖추고 있었지만, 내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기엔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첫주는 필승을 외치며 열심히 학점의 칼을 갈며 공부했던 기억으로 쑥싹 지나간다.

그리고 들쭉날쭉, 셋째주….,

약기운(?)이 떨어진 걸과로 동기들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지 1학년 때보다도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후배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의 벽을 느끼게되는 우리들도, 스스로의 모습을 곰곰히 씹어보면 후배들과는 또다른 벽을 쌓고는 있지 않았을까. 술자리에서도 내일 제출할 레포트를 걱정하고, 마음은 도서관에 가있고…,

군대 가기 전의 '외대'는 나에게 방송국생활과 사랑을 안겨준 낭만이 깃들어있는 곳이자, 이 나라의 아픔을 체험하는 진리의 장이었다.

다시 돌아온 외대는 조금은 낯설지만 여러가지 추억으로 따뜻하게 반겨주었다고 기억된다.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우리학교에 대해 낯가림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오랜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과의 거리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복학생 각자가 개별화된 데서 나오는 모습일게다.

복학생들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는 곧바로 삶의 고민으로 다가온다. 남보다 2~3년을 더 외대생이어야 하는 우리에게 외대라는 이름은 더욱더 각별한 의미로 가슴속에 남겨진다. 그래서 외대인이라는 명패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당당히 걸고 다닐 수 있는 것이길 바라고,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외대발전의 움직임에 예비역 형님·동기들의 참여는 스스로의 문제를 전체가 함께 풀려는 우리 외지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사회에서 헤맸던 만큼이나 이 글도 서툴지만, 지금 새삼 느끼는 것은 신입생때 지녔던 순수함, 겸허함을 다시한번 지니고 싶다는 바램이다. 하나하나 개별화·고립화되는 것이 아닌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되내기'가 되자는 그 바램으로.

정 석
〈상경·경제3〉

문화 옹달샘

삶과 문화
—마리안네 케스팅 지음
—홍승용 옮김

서구의 문화적 전통의 고정된 틀과 부르조아적 허위의식을 깨나가려 했던 독일의 변혁적 문예운동의 작가 브레히트의 삶과 문화을 다룬 평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그의 삶을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라는 점에서 이책은 그 가치가 더해진다. 책 곳곳에 인용된 작품은 브레히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한마당펴냄 값4천원〉

한락산
—김명식 지음

날아가는 까마귀야/시체 보고 울지 마라/몸은 비록/죽었어도/혁명정신 살아 있다.('한라산 4·3꽃' 중에서)

4·3제주민중항쟁의 진실을 담은 서사시집으로 이 시집의 제목인 '한락산'은 '한라산'의 제주도 말이다.

미국과 이숙만 정권의 한반도 분열음모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다 산화해 간 제주민중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신문문사펴냄 값4천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혜자·류현 외 지음

해를 더해 갈수록 광폭해지는 학내외적 탄압에도 폭발적 호응속에 치루어진 제3회 임수경 통일문학상 수상작중 단편소설과 생활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김혜자의 '그해 송강의 겨울' 류현의 '우리 시대의 판화'등 5편의 단편소설과 백기현의 '칠묵을 돌고' 장영환의 '공동기자단일기'등의 생활글들이 실려있으며 각 작품마다에 통일에 대한 애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두리펴냄 값3천8백원〉

한국 근현대 노래 80년사 '끝나지 않은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주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오는 4월21일(화)부터 5월6일(수)까지(매주 월요일 쉼) '하진'소극장에서 다큐멘타리식 음악극 형식으로 한국근현대 노래 80년사 '끝나지 않은 노래'를 공연한다. 왜곡된 한국음악사속에 묻혀진 주옥같은 노래들을 통해 시대 상황과 맞물려진 문화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국음악의 실상을 보여 준다.

▲입장료:5천원
▲연락및 문의처:노래를 찾는 사람들(338—9948)

민족극 '우리 사는 이야기'
—늘이패 '한두레' 주최

오는 4월16일(목)부터 20일(월)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늘이패 '한두레'는 민족극 '우리 사는 이야기'를 공연한다. 지금까지의 노동연극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로 다루어온데 비해 이번 연극엔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노동해방의 희망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연락및 문의처:늘이패 '한두레'(646—1939)

노래판굿 꽃다지 '들꽃으로 피어나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연세대총학생회 주최

오는 4월25일(토), 26일(일) 이틀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노래판굿 꽃다지 '들꽃으로 피어나라'가 열린다. 91년 열사들의 죽음과 함께했던 5, 6월 투쟁 1주기를 맞이하며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투쟁을 다지기 위한 공연으로서 놀이패 '한두레', 극단 '현장', 풍물패 '터울림', '꽃다지'등이 출연한다.

▲입장료:4천원(단체:2천원)
▲연락및 문의처:서울노동자문화예술단체협의회(831—3426~7)

파수대

통일의 춤사위

—지난 10일(금) 인하대에서 열린 전대협 총회에서 분단의 한을 주제로 한 고전무용이 많은 학우의 눈길을 끌었다.

〈박준모 기자〉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 마감일 ·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 마감일 ·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 마감일 ·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 마감일 ·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 마감일 ·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 마감일 · 외대학보

"힘들지 않아?"

학보사에 들어갔다는 나의 말에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던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밤을 꼬박 새기도 하고
때론 선배의 꾸중에 뽀르퉁 해 있기도 했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쓴 나의 글이
신문으로 친구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땐
가슴 한 언저리가 뿌듯함을 느낀다.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마.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단다.

오늘은 외대학보 제47기 수습기자 원서마감일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92학번 새내기는 오늘 오후 5시까지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달려 오십시오.

외 대 학 보